

발간등록번호
54-3510020-000002-09



2018년 통권 제 49호

Incheon Namdong Gu Council

남동구의회보

발행처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발행일 2018년 9월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장도 포대지[獐島砲臺址]
인천문화재자료 제19호

이 포대는 조선 고종 16년(1879) 일본측이 서해안을 측량하면서 개항지를 탐색하는 것을 보고 인천을 개항 후보지로 요구할 것을 대비하여 어영대장 신정희와 강화유수 이경하가 인천과 부평 연안에 화도진을 설치하고 포대를 만들 때 함께 만들어진 것으로 1999년 “화도진도” 원본 확인을 통해 이곳에 3혈(穴)의 포대를 설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반인들에게는 땡구산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장도포대지는 소래포구에서 시흥사로 이어지는 소래철교 서북쪽의 끝, 협계철도 남쪽변에 위치하고 있다. 당시에는 해발 약40m 정도의 구릉지였으나 수인선 철도를 놓을 때 산의 상당부분이 깎여 현재는 반쯤 남아있는 상태이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담쟁이 문장

차 용 길

병실 밖 담장으로
한사코 기어오른
누대에 무슨 한이 그리도 많았는지
달팽이 온 몸뚱이로
오체투지 하듯이

서로 손 마주잡고
직벽에 써올라 간
절망의 벽이 아닌 희망의 벽을 넘는
푸른 잎 온 벽을 덮고
불립문자 쓰듯이

병실 안 여백으로
푸르게 세긴 문장
뽀뽀하고 짓밟혀도 질경이 돌아나듯
한 생을 온몸으로 쓴
어머니의 주름경



月波 차용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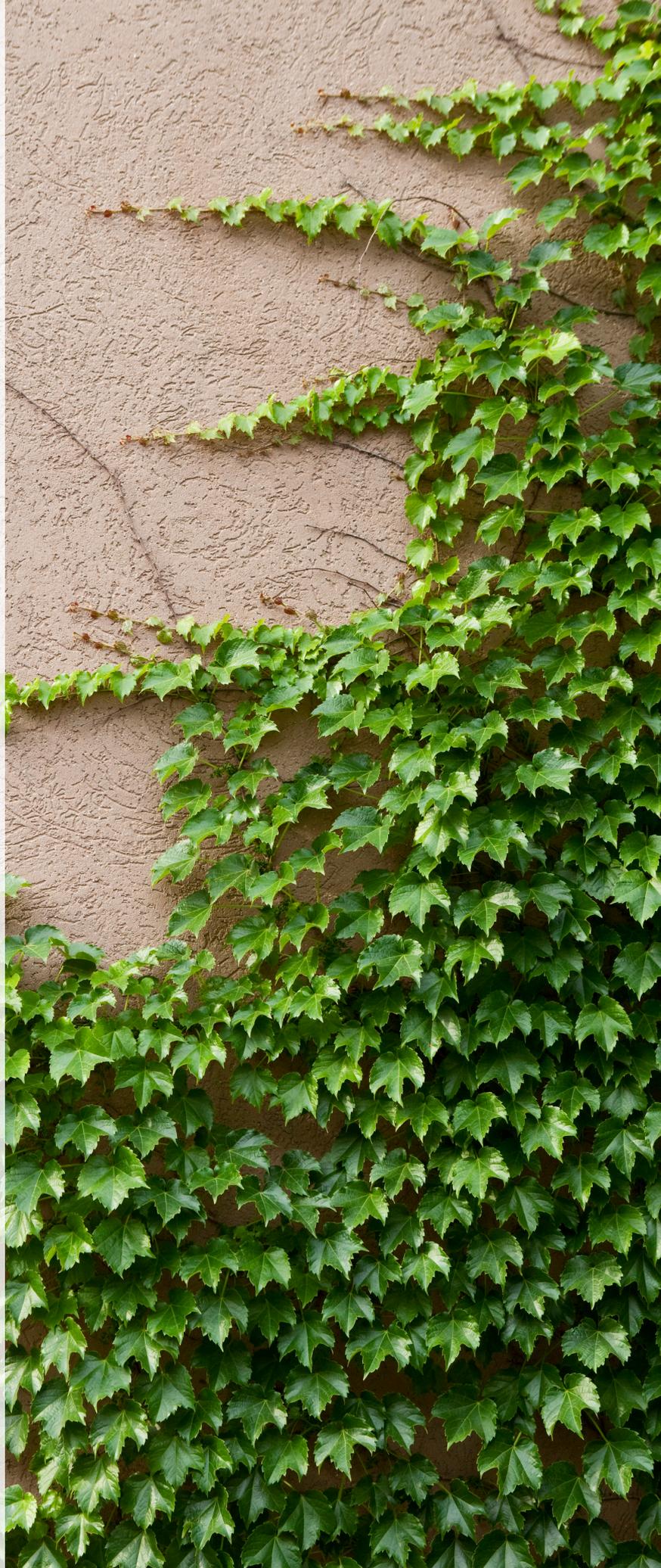
【프로필】

전북 김제에서 출생하여 月刊『순수문학』신인상으로 등단했다. 국제PEN 한국본부 인천지역회장, 인천문인협회 이사, 남동문화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제PEN 한국본부 자문위원, 인천문인협회 회원, 기록물관리 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시집으로 《여울각시》, 《맨드라미》, 《소래포구》, 산문집으로 《얼굴로 피는 낙조는 붉은 와인 향이었다》.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가 있으며, 공무원문에대전, 중앙일보 시조백장, 연금수필문학상을 수상했다.

E-mail : ykc2735@hanmail.net





31



46



59



60

- 발행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 전 화 032)453-5150
- 팩 스 032)453-5029
- 발행일 2018년 9월
- 편 집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홍보팀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 인쇄 / 디자인 (주)동양인쇄사 ☎032-432-9480

CONTENTS

02 개원사(의장 최재현)

04 제8대 전반기 남동구의회 구성현황

06 자유기고문

30 남동구의회 회기 운영 현황

52 5분자유발언(민창기)

56 의정활동 및 의회 이모저모

64 언론으로 보는 남동구의회

98 2018년도 회기 운영계획



남동구의회의장 **Greetings**

최재현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남동구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새롭게 출발하는 제8대 남동구의회가 새로운 출발선에서 힘찬 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남동구의회는 지방의회의 제자리를 찾겠습니다.

지난 4년동안 재활용쓰레기 직영수거 등 득(得)보다는 실(失)이 많은 정책으로 인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었습니다.

지금껏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틀 속에서 구정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 간의 부족함을 되돌아봅니다. 변화와 신뢰 회복은 구민여러분들의 명령입니다. 구민들께서 주신 권한으로 이제는 의회가 제자리를 찾겠습니다.

제8대 남동구의회는 진정한 민의가 살아 숨 쉬는 민생정치 구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 남촌에코산업단지조성, 88체육관 주변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인천대공원~소래포구 관광벨트 조성 등 굵직한 현안사항이 현재 남동구가 직면한 과제들입니다.

이러한 큰 사업들은 언제나 갈등을 동반합니다.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의회가 갈등해소의 중재자로서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귀로는 주민의 의견을, 눈으로는 주민의 삶을, 가슴으로는 주민의 애환을 담아내는 살아 숨쉬는 민생정치 구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제8대 남동구 의회는 구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소통하고 신뢰받는 남동구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이 생활정치를 매개로 정치의 주체자로서 역할을 하는 시대의 흐름속에서 제8대 의회에서는 여성의원님들의 진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여성특유의 섬세함과 따뜻함은 생활정치와 매우 잘 어울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섬세함’은 꼼꼼하게 구의 살림살이를 살피어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는 씨줄이 되고 ‘따뜻함’은 의원들과 화합을 이끌고 집행부와 의원간의 원만한 소통과 협치를 이끌어 내는 날줄이 되어 남동구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훌륭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젊은 리더들의 대세를 반영하듯 젊고 풋풋한 초선의원의 약진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8대 남동구의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다양한 움직임이 제대로 관통한 듯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구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신뢰받는 남동구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8대 남동구 의회는 남동구의 발전과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 구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집행부와 동반자적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남동구 발전과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 구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동구 발전의 양축인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면서 견제와 협력이라는 균형을 맞춰 공동의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니체는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항해를 하면서 바다가 늘 잔잔하기만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항해에도 풍파는 언제나 따라다닐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제8대 17명의 의원 모두는 새 시대로 나아가는 각오와 자세로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남동구의 밝은 미래,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남동구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의장 **최재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8대 전반기 구성현황

의장 / 부의장

Chairperson
Vice-Chairperson



|의장| 최재현
(만수2·3·4·5)



|부의장| 이유경
(만수1·6, 장수서창)

의회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 위 원 수
8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6)
- 소관사항
 -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위원회 심사 등



|위원장| 김윤숙
(만수1·6, 장수서창)



|부위원장| 김안나
(구월3, 간석1·4)



|위원| 오용환
(논현1·2, 논현고잔)



|위원| 정재호
(구월1·4, 남촌도림)



|위원| 이정순
(구월2, 간석2·3)



|위원| 이용우
(만수2·3·4·5)



|위원| 유광희
(만수1·6, 장수서창)



|위원| 강경숙
(비례대표)

총무위원회

General Affairs Committee

- 위 원 수
8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6)
- 소관사항
 - 기획예산실, 공영개발사업단,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지방공기업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각 동의 사무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위원장 황규진
(구월1·4, 남촌도림)



부위원장 이정순
(구월2, 간석2·3)



위원 민창기
(논현1·2, 논현고잔)



위원 임애숙
(논현1·2, 논현고잔)



위원 신동섭
(구월2, 간석2·3)



위원 김윤숙
(만수1·6, 장수서창)



위원 이유경
(만수1·6, 장수서창)



위원 반미선
(비례대표)



위원장 이선옥
(구월3, 간석1·4)



부위원장 강경숙
(비례대표)



위원 오용환
(논현1·2, 논현고잔)

사회도시위원회

Social and Urban Committee

- 위 원 수
8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6)
- 소관사항
 -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각 동의 사무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위원 정재호
(구월1·4, 남촌도림)



위원 김안나
(구월3, 간석1·4)



위원 조성민
(구월2, 간석2·3)



위원 이용우
(만수2·3·4·5)



위원 유광희
(만수1·6, 장수서창)

(논현1.2, 논현고잔동/총무위원회) 남동구의회 의원 **민창기**

‘견제와 협력’을 통하여 소통하는 남동구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민창기입니다.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폭염의 무더위와 밤잠을 설치는 열대야로 인해 고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항상 명랑하고 행복한 생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하여 남동구민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다시 받게되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는 남동구민들을 위한 소통과 봉사를 하라는 명령으로 생각하고 좀더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좀더 편리한 구민생활 및 구민에게 다가가는 지방의원이 되기 위하여 앞으로 4년동안 의정활동 목표를 다음 3가지로 정하였습니다.

첫째로, 이권과 청탁 등에 개입하지 않고 깨끗하게 일하며, 정책에 치중하고, 주민에게 헌신하는 제대로 된 지방의원 상을 정립하겠습니다.

구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며 구민들의 편익을 위한 정책은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이를 행정에 반영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둘째로, 상임위원회 활동, 조례입법,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기본에 충실하여 집행부를 올바르게 견제하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전반기 총무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집행부를 견제하며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도록 노력하고 조례입법 등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 구민들에게 편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일자리 창출, 골목경제 활성화 등 서민경제 살리기와 장애인, 노인,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과 복지를 강화해 구민이 행복한 남동구를 실현하겠습니다.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과거의 집행부의 우수한 행정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다소 부족했던 업무는 이를 개선하여 새롭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민창기 의원은 ‘견제와 협력을 통하여 소통하는 남동구의회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현1,2, 논현고잔동/사회도시위원회) 남동구의회 의원 **오용환**

민심에 귀를 기울이며 가슴으로 정치하고 싶다.



남동구의회위원이 되고나니 새삼스레 지나간 시절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하다.

오늘은 어제의 발자취이고 내일은 오늘의 밑거름 이기에 어찌면 당연한 기억일 수 있다.

전문적인 조직도 없고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며 인적자원을 형성한 것도 아니면서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13일간의 본격적인 공식선거 운동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나를 응원하고 격려해준 내 가족들과 선거캠프의 큰 언덕이 있었 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것은 바로 나를 믿고 신뢰해준 논현동 지역주민들의 지지와 성원이라 하겠다.

굳이 한발 더 나아가자면 사회복지사로서 지난 십여 년 동안 지역발전과 사회공동체 화합을 위해 묵묵히 시간봉사와 재능기부 등이 필자의 전부인데 아마도 이런 자선이 현명하고 성숙한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높은 평가로 이어져 표심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니 한없이 고맙고 고개가 숙여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가!

막대한 은혜와 성원을 받았기에 한편으론 책임감과 정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입성한지 두 달도 안됐지만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리다보니 마치 일 년이 넘은

듯 한 느낌을 받은 것은 나만이 그런 것일까?

아직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도 제대로 다 전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면서 행복이 있는 논현동, 삶의 질이 변화하는 남동구를 위해 한걸음 한걸음 발길을 옮기면서 길에게 길을 물으며 나에게 약속하고자 한다.

첫째는, 논현동이 키워주고 신뢰했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정도의 길을 걸고자 한다. 이는 외부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옹고그름을 판단하여 원칙과 소신으로 사익보다는 공익에,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결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유연성의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는, 주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의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무한실천이다.

풀을 뽑아보면 잔뿌리가 무수히 많음을 볼 수 있듯이 어떤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낙오자를 최소화하여 동등한 환경과 양성평등으로 공동체사회의 화합을 만들어가겠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남동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균등한 발전이다.

(논현1,2, 논현고잔동/사회도시위원회) 남동구의회 의원 오용 환

민심에 귀를 기울이며 가슴으로 정치하고 싶다.

남동구는 농업과 공업 그리고 어업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그 어느 도시보다도 매우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층간의 불신을 최소화하고 수직관계를 수평 관계로 유지함으로써 지역갈등해소로 공정하고 아름다운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함이다.

이는 사회의 갈등과 무관심이 빈부의 차이에서 비롯됨이 아닌 개인이기주의와 무관심 그리고 배려심이 부족한 배타적인 환경에서 비롯됨을 인식하고 화합의 장으로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논현동 주민여러분! 그리고 남동구민 여러분!

구 의원은 단순한 명예욕이나 권위의식 그리고 개인의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정치인이 아닌 사회균등과 지역발전을 위해 행동하는 양심으로 실천하고 봉사하라는 주민대표의 자리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주민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열정의 초심을 결코 잃지 않고 다소 늦더라도 민심에 귀를 기울이며 가슴으로 정치하고 싶다.

일로써 신뢰받고 보상받는다면 60여 년간 뿌리내린 지역주의는 물론 학연이나 지연 그리고 신 지역주의를 배타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믿기에 우리 유권자들도 좀 더 성숙하고 지혜로움으로 함께 하길 갈망한다.



(논현1,2, 논현고잔동/총무위원회) 남동구의회 의원 **임애숙**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남동구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남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여러분과 약속한 저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지역의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정직한 구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매일매일을 분주히 보내고 있는 즈음입니다.

우선, 영유아의 안전한 교육과 보육환경을 확충하기 위해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실시 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아교육 및 유아보육 전문가와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 사안이기도 하므로 지속적인 대책논의와 방향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며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지역적 여건에 따라 시행시기와 지원조건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향후, 부분적으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생활체육의 일반화를 위해 유초중고생을 시작으로 장애인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스포츠를 접할 수 있도록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을 육성하여 체육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엘리트 스포츠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포츠는 누구나 즐겁게

참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나아가서는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기초가 되어야 하기에 생활속에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현장의 조성으로 더욱 건강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구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배려하고, 소통하며 신뢰받을 수 있는 지역의봉사자로서 구민 여러분들께 한발 먼저 다가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월1.4, 남촌도림동/사회도시위원회) 남동구의회 의원 정재호

남동구의 젊은 독심!!! 정재호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에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역경은 정말 소중한입니다. 그러나 순조로운 환경 역시 중요 합니다.

이제는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남동구 소년소녀 가장 아이들에게 희망에 불을 밝혀주는 남동구의 등대가 되겠습니다.

남동구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나눔의 미덕이 있는 세상, 우리 사회의 밝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지 항상 살피겠습니다.

남동구민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작은 소망은 많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눌 줄 아는, 조금 가진 것이 소외가 아닌, 진실한 사랑이 넘치는 남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장애는 불편 하지만 불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편견이 없는 남동의 푸른 희망을 실천 하겠습니다.

장애는 불편 하지만 불행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두가 하나되어 살기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장애를 가진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과 사회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월1.4, 남촌도림동/총무위원회 위원장) 남동구의회 의원 **황규진**

**항상!!! 주민의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어려움 같이 하겠습니다.
행동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구월1,4동 남촌도림수산동 지역구 출신 남동구의원 황규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 격려해주신 덕에 제8대 의회의 배를 타고 새롭게 출범하여 남동구의회 전반기 총무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의회활동의 첫 발을 내딛고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달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벌써 6.13지방선거에 남동구의원으로서 당선되어 활동한지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조선의원으로서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남동구민들의 대변인으로 주민들을 만나 항상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부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고 구민들의 대변인으로써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려는 초심의 맘을 항상 가슴에 담고 노력하겠습니다.

구의원이 되기까지 오랜 “봉사활동”을 통해 주민의 아픔과 애환을 누구보다 몸소 느꼈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기반을 삼아서 “각계각층 특히 서민들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민 목소리를 들으며 구민들의 고충을 나누고 구민과의 소통의 장을 항상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 “잘해라, 열심히 해라” 충고하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 지역의 주민 복지를 위해 누구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한번 남동구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위를 바라보지 않고 아래를 보면서 언제나 나와 같은 일반서민의 말에 귀 기울여 곁에 있는 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남동구민의 대리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월3, 간석1.4동/사회도시위원회) 남동구의회 의원 **김안나**

초심을 잃지 않는 김안나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동구 지역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월3동, 간석1.4동 지역주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로 꿈을 이루게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김안나입니다.

‘꿈이라는 글자를 가슴에서 꺼내어 현실로 만드는데 어느덧 2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구의회로 출근하며 항상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남동구의 30개 동 중 제 지역구인 구월3동, 간석1.4동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가장 높게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저는 늘 주민과 소통하는 자세로 구정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적 가치로 두고 사람 중심, 안전한 남동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공복지 증진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항상 주민들을 섬기는 김안나가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생활정치 구현을 통해 항상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정책이 잘못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 견제를 통한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제8대 남동구의회는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출범하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과 임무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많은 정책을 펼쳐 가며 보여주기 식의 구정 활동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가지 정책이라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선배의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 애써주신 우리 남동구의회를 전국 어느 곳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선진의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화합하여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치가 아닌 주민들을 웃을 수 있게 하는 구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주민의 참여가 없는 지방자치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저는 항상 주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동료의원들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한 견제와 균형은 물론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지방자치 본래의 역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남동구의회는 주인은 우리 의원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월3, 간석1.4동/사회도시위원회) 남동구의회 의원 김안나

초심을 잃지 않는 김안나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일하게 해주신 구민 여러분들입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당면했을 때 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남동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린 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제가 혹시라도 잘못된 정책을 펼치거나 초심을 잃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과감한 충고와 따끔한 질책을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주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제게 아낌없는 격려와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능력이 부족할 때는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주민 여러분들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청렴하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결코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참 일꾼 '김안나'가 되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월3, 간석1.4동/사회도시위원장) 남동구의회 의원 **이선옥**

남동구에 꼭 필요한 의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월3동, 간석1.4동 지역구 의원 이선옥입니다

구민여러분의 사랑으로 2014년 남동구의회 제7대 의원으로 들어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2018년 재선의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4년을 바탕으로 구민을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작은 일에도 귀 기울이며 남동구에 꼭 필요한 의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지역 현안사항을 마무리 했을 때 가장 뿌듯하고 기억에 남습니다. 화물차량들이 즐비하게 있던 학교 앞에 인도설치가 깨끗하게 마무리 되었을 때는 현장에 몇번이고 다시 방문하여 깨끗한 거리를 보며 마음속으로 “이선옥 정말 잘했어” 라며, 자화자찬 할 만큼의 가슴벅찬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독고노인들을 위한 고독사 예방조례와 아동학대방지조례 등 꼭 필요한 제도 등을 개선 하였을 때 지역의 대변인으로써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새롭게 시작된 4년을 더욱더 알차고 멋지게 활동하기 위해서 마음이 바쁩니다.

구도심지역 특성상 지역 구석구석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복지욕구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을 살뜰히 챙겨 지금의 남동구 보다 살기좋은 환경으로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앞으로 주어진 4년을 지난 4년보다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며 소통 잘하는 지역의 대표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노후된 동 청사를 주민이 필요한 다목적 신청사로 바꿀 수 있도록 집행부와 논의하여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민들의 자치실현에 일조하겠습니다.

빛나는 진주 보다 흙 속의 숨은 진주가 되는 멋진 주민의 대표자가 될 것을 다짐하며 주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 소통 잘하는 제8대 남동구의회가 되는 것에 최선의 역할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월2, 간석2.3동/총무위원회) 남동구의회 의원 이정순

주민들에게 한 약속! 노력하고 정진해서 지키겠습니다.



요즘 거울에 비춰지는 내 얼굴을 보면서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울때가 간혹 있습니다.

예전의 활기차고 밝은 미소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달여 동안 활동해온 의정활동이 만만치 않음이 첫번째 이유입니다.

선거기간 동안 주민의 손과 발이되어 주민을 대표해서 일 할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를 하였고, 주민들께서는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쁨도 잠시 공부해야 할 부분도 많고 넘어야 할 산이 두루두루 산재되어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경청과 소통이 답이다"

"부드럽다, 확실하다, 맡겨보자 이정순" 구호로 이정순을 알렸고 <주민의 편에서 주민을 대변하는 구의원, 남동구 행정을 철저히 감시하는 구의원, 정책으로 승부하고 공부하는 구의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깨끗한 구의원, 소외된 이웃에게 힘이 되는 구의원>이 되겠다고 한 약속, 노력하고 정진해서 지키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월2, 간석2.3동/총무위원회) 남동구의회 의원 **신동섭**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의 민간위탁과 밤을 낮 삼아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밤 8시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 이들은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사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 같이 골목골목을 돌면서 청소를 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아침에 일어나 깨끗한 거리를 맞대면하는 것은 밤을 낮 삼아 일하는 쓰레기 처리사업의 민간위탁업체 근로자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민간위탁업체에서 편법으로 가로챈 사건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된바가 있다. 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기업이윤 10%내외를 보장받는 민간위탁업체가 근로자의 임금에 손을 대어 편법으로 가로챈 것이다.

청소대행업체의 대행단가는 환경부 고시 제2013-53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다. 동규정제3호(산정방법)에 의하면, '용역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근거로 별지서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비목은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비목별로 모든 구성항목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와 규정에 따르면 어떠한 부정한

행위도 있을 수 없다. 인건비, 유류비, 장비수선비, 피복비, 감가상각비, 4대보험 등 세부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대행료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대행업체로 선정되면 3대가 먹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회자하고 있다.

정부는 2012. 1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만들어 외주화 하는 경우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강화 함으로써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i.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 용역계약 시 업체선정·관리 등 준수사항 명시, ii. 청소용역 직영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 시 민간전문가 경영컨설팅 지원, iii. 용역업체 근로감독 강화 등이다.

즉, 환경부 고시에 의한 원가산정, 정부의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하면, 청소대행업체 근로자는 근로조건 및 임금을 보호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받고 있고, 동일한 노동을 제공함에도 임금 격차가 월 100만원 이상 차이나는 곳도 많다.

(구월2, 간석2.3동/총무위원회) 남동구의회 의원 **신동섭**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의 민간위탁과 밤을 낮 삼아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왜 이러한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첫째로, 관련기관의 관리 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순환과, 청소과 공무원들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할지 우왕좌왕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가 발생해도 적당히 시간을 보내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둘째로, 관리 감독기관이 관행에 얽매어 있다는 점이다. 쓰레기 처리사업의 민간위탁은 외환위기시 공무원 총수에 묶여 정규직 공무원을 제외한 계약직 근로자인 청소 대행업 근로자를 민간위탁 하였다. 이 과정에 관련 기관이 근로자를 보호하면서 민간 위탁을 하지 않고, 지역의 토호세력과 결탁하여 근로자의 보호는 등한시한 채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행계약을 체결해 왔다.

셋째로, 일부 청소 대행업체가 토호세력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청소 대행업 민간업체 선정 시, 업체 허가를 신청한 사업 주의 면면과 주위를 살펴보면 정상적이지 못한 점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작업을 마치고 나면 옷과 몸에 냄새가 배어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지도 못하고, 근무조건이 낮고 밤이 바뀌어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쓰레기 처리사업의 민간위탁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첫째로, 정부의 환경부고시에 의한 원가분석과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입법화하고, 근로자의 노무비를 대항료 입금 시 통장을 이원화 하여 분리입금하고 정산을 받는 것이다.

둘째로, 용역평가에 의거 대행계약 체결 시 직접노무비율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셋째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소 대행업은 자치단체 공단 업무로 이관 시키거나 직영화 하는 것이다.

넷째로, 공무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오늘도 어려운 작업환경 속에서 일하고 낮과 밤이 바뀌어 열심히 일하는 쓰레기 처리사업의 민간위탁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임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구월2, 간석2.3동/사회도시위원회) 남동구의회 의원 **조성민**

저의 젊음을 남동구에 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의원 조성민입니다.

처음 정치의 첫 발을 내밀 때 두려움과 걱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과 하루하루 가슴으로 소통하면서 두려움보다는 당당함이 걱정보다는 열정과 패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사회적 불합리, 노동의 불합리, 산업구조 불균형, 경제 불균형, 소득 불균형, 일자리 과열 경쟁 등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이유도 이런 불합리 속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사회적불합리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정치인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정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 신임을 얻지 못하고 '그들만의 세상', '다 똑같은 놈들', '뭐가 바뀌는데?'라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저부터 솔선수범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무관심으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구민 여러분의 무관심은 곧 방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55만 남동구민의 대표로서 8천억에 가까운 남동구 예산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확실히 해나갈 것이며,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자율과 책임이 적절하게 조화되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공헌하겠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치루며 많은 주민들께서 마치 짜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같이 입을 모아 "그래, 젊은 사람이 나서서 새로운 정치 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메시지에서도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주민들께서는 그동안 정치인들이 보여준 부정 부패와 잘못된 관행에 넋더리가 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의원 하나 바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을 섬기며 남동구의회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며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주민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차근차근 하나씩 바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여러분들께서 일상에서 마주한 불합리는 제가 여러분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더불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겠지만 주민을 위해서라면 어느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제게 부여해주신 권한은

(구월2, 간석2.3동/사회도시위원회) 남동구의회 의원 **조성민**

저의 젊음을 남동구에 쓰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개인의 사익이 아닌 오직 남동구민의 권익증진을 위해서만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아닌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우리 이웃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저는 남동구민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 되겠습니다. 저의 성장은 곧 남동의 성장이자 미래가 될 것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그저 허상에 불과하지만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여러분들께 한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저 조성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여러분 앞에서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2,3,4,5동/사회도시위원회) 남동구의회 의원 **이용우**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민생을 먼저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수2,3,4,5동 지역구 의원 이용우입니다.

저는 우리 남동구에 절실히 하고 싶은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면도로 교통 환경 개선입니다.

출,퇴근시 우리 남동의 이면도로 교통 환경은 이미 한계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일방통행로 및 교통흐름 등을 좀 더 관심 있게 확인하고 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는 주차시설확보입니다.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어 저녁마다 골목을 몇 바퀴씩 돌아야 하는 고통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즐겁게 웃으며 지내야 하는 이웃사촌이 주차문제로 원수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쌘치 주차장 확보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셋째는 CCTV 설치확대입니다.

어두운 밤길에 위험하다는 생각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여성분들에게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CCTV 설치확대, 자율방범 지원 등 아이들이 안심하고, 여성들이 안심 할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이 행복 할 수 있는 그런 남동구를 만들겠습니다.

“항구에 머물 때 배는 언제나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은 배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다”

지역의 일꾼으로써 지역 곳곳을 다니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민생을 먼저 챙기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여러분께 신뢰받고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2,3,4,5동/남동구의회 의장) 남동구의회 의원 **최재현**

남동구의회 의 올바른 이정표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수 2,3,4,5동 지역구 의원 최재현입니다.

제7대 남동구의원으로서 당선 기쁨 안고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때가 엇그제 같습니다. 초선의원으로 여러 가지 한계도 느꼈지만, 지방의회가 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본회의는 물론 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 의회 운영위원회 활동, 예결위원회 활동을 최우선시하였고, 매일 공부하며 100% 출석으로 구민의 대리인으로서 맡겨주신 책무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이행하고 보답하고자 달려온 지난 4년이었습니다.

이제 제8대 남동구의회가 개원하여 힘찬 발걸음을 한 발 내딛고 있습니다. 지난 제7대 의정활동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민의 삶과 직결된 부분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구도심에 위치한 지역의원으로서 지역실정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남동구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지역구를 되돌아 봤을 때 대부분의 주택들이 노후한 상태로 주변지역의 대규모 개발에서 소외된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임기 동안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구의 지역활성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구도심 개발정책은 새 시대를 맞아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20세기 후반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의 대규모 개발은 개발지역의 몰아주기식 발전으로 개발지의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개발지역과 구도심 간의 격차를 벌여놓아 구도심지역이 소외되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구도심에 시선을 돌릴 때입니다. 구도심 도시재생으로 도심간의 격차를 줄이고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활성화, 자생적 기반구축까지 한 차원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저의 지역구 곳곳에는 대규모 개발에서 소외된 채 노후 된 주택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만수2동 만부마을은 지난 1960~70년대에 급속한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밀려난 이주자들이 집단으로 정착하면서 형성된 마을로 대부분의 주택이 노후한 상태로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국책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선정에 이어 올해 8월 국토교통부 최종 심의를 통과하여 총 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돼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만수무강 만부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첫 삽부터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지역의 특성이 최대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일방향적 사업이 아닌 소통하는 맞춤형 사업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힐 수 있게끔 집행부와 구민 사이에서 윤희유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만수무강 만부마을

(만수2.3.4.5동/남동구의회 의장) 남동구의회 의원 **최재현**

남동구의회 의원 올바른 이정표를 만들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선도하여 우리 지역구 및 남동구에 좋은 영향력의 시작점이 되고 더 나아가 타 지역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저를 선택해주신 지역 구민들께 다시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지지해주신 소중한 한표! 한표를 감사히 생각하며 남동구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허락해 주신 4년간의 의정기간 동안 열심히 발로 뛰며 항상 구민들의 입장이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눈길 함부로 건지 마라. 네 발자국이 뒤에 오는 이의 이정표가 되리니~”

의원으로서 제가 걷는 길이, 후에 있을 남동구의회 의원들의 활동에 이정표가 된다는 각오로 한발 한발 정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건강과 행복한 삶이 55만 남동구민 가정에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수1.6, 장수서창동/의회운영위원장) 남동구의회 의원 김윤숙

구민이 행복한 남동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김윤숙 의원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구민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사랑과 응원해주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주민과 소통하는, 소신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2008년부터 상담봉사를 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주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가까이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상담봉사를 하는동안 아동, 청소년, 부모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생각은 심리적 어려움이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민,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인, 학교박청소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 봉사하며 용기를 내었습니다.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었던 사람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 의정을 펼친다면 더 나은 행정이 되리라 생각하고 구의원에 출마한 저를 구민들의 민심의 힘으로 구의원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동구민을 대변하고 봉사하고자 합니다. 옛 성인들은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입이 하나, 귀가 둘인 것은 말을 아끼되 귀를 기울이라 하였습니다. 구민의 편에서 다양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다 구체적인 교육정책과 서민복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 들어와 처음으로 민원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1시간여를 걸어 돼지 축사를 둘러보며 신발과 바지가 지저분해진 것을 보고 행사장 참여도 중요하지만 항상 공부하면서 발로 뛰며 준비하는 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의회에 첫발을 내딛던 처음 마음을 잊지 않고 8대 의원들과 함께 남동구의 발전과 모두가 잘 살수는 없겠지만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남동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동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는 최재현 의장님을 비롯해 여야를 떠나 17명의 구의원들과 공무원들, 모두가 힘을 합쳐 남동구의회 발전과 행복한 남동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민의 응원에 힘입어 활기찬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복과 희망이 넘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수1.6, 장수서창동/사회도시위원회) 남동구의회 의원 유광희

초보(初步)의원답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열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잠언입니다. 이렇듯 한 가정의 소중한 첫 아이를 기르는 일, 당연히 온 마을이 함께 해야 합니다.

초보 아빠인 저 유광희 구의원의 역할이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난생 처음으로 아이 우유 먹이는 일, 목욕시키는 일, 기저귀 갈아주는 일 등등, 처음이라 당황스러운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렇듯 아이를 처음 낳고 키우게 되면 초보 부모라는 꼬리표를 가지게 됩니다. 저와 같이 지금 초보 육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과정일 것입니다.

초보 아빠인 저는 정치도 처음입니다.

초선의원입니다. 그래서 더욱 저 유광희 남동구 의원과 처음 만나는 주민들이 더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경청하고, 현장을 살피고, 어려운 일을 찾아 보듬어 가는 일 등등, 이 모든 게 초선의원의 소중한 책무입니다.

저 유광희 구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청년 단체라는 조직 속에서 정치의 초심을 배웠습니다. 정치도 모르고 정당도 몰랐던 그 시절, 오직 청년과 함께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민주당 인천시당 청년위원회 사무국장을 자처하며 열심히 뛰어나섰습니다.

그러다 제가 살고 있는 주민과 이웃을 만나며

남동 구민의 삶을 돌아보는 삶의 현장 체험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회정치는 주민과 많이 괴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오직 정치인의 기득권 행사만 난무했습니다. 때론 정쟁만 일삼고 혈세를 낭비하고 등등, 그런 이유로 정치를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고자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해서 당당하게 주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 정치에 들어와 보니 초보 아빠 처럼 쉽게 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 후보 시절 결의한 것만큼 현장 정치의 헤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를 비롯한 다른 초선의원님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현장 속에서 답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직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처리 과정을 직접 살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의 어려운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두루 살폈습니다. 함께 잘 사는 공생의 정치를 점차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남동 주민들은 기성 기득권 정치인에 대한 불신으로 초선 정치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럼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조금이라도 정치가 변화되고, 쇄신되고, 혁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남동구의회 초선의원들은 그런 주민들의 희망을 알기에 초심 잃지 않고 정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불과 두 달이 넘는 의정활동이었지만 신뢰와 믿음을 주기 위해 열심히 뛰고 또 뛰어다녔습니다. 오직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현장을 찾아 주민과 소통하였습니다.

초선의원을 포함한 재선 의원 모두가 현장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하나의 각오로, 하나를 위한 모두의 열정으로 남동구의회에 화합과 단결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직 주민 편에서 의정활동이 이뤄지도록 머리를 맞대고 손을 잡아야 합니다.

선배 의원들은 앞에서 모범이 되고 초선의원들은 뒤에서 밀어주면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 '일신 우일신' 하는 자세로 매사 모범 일꾼의 정형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행정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많은 신뢰와 사랑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에드몬드 힐러리'라는 뉴질랜드 출신 산악인의 생애가 갑자기 생각 납니다. 이 사람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성공한 산악인입니다. 청년 시절 그는 에베레스트 산에 수차례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도전에 실패하면 낙심하고 좌절할 텐데 그는 언제나 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여, 너는 자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끊임없이 자랄 것이다”

이런 멋진 말을 하고 나서 그는 좌절하지 않고 실패를 거듭하며 도전한 끝에 10년 뒤 1953년 5월 29일! 드디어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도전정신과 굳은 의지가 결국 그의 성공의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남동구의회 초선 의원들도 초보 부모와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조금 더디 가지만 오직 주민만 생각하며 한 길 가겠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는 열 사람의 한걸음으로, 주민과 함께 상생의 정치를 열어가겠습니다. 기꺼이 손 잡아주시고 열린 가슴으로 희망의 남동열차를 함께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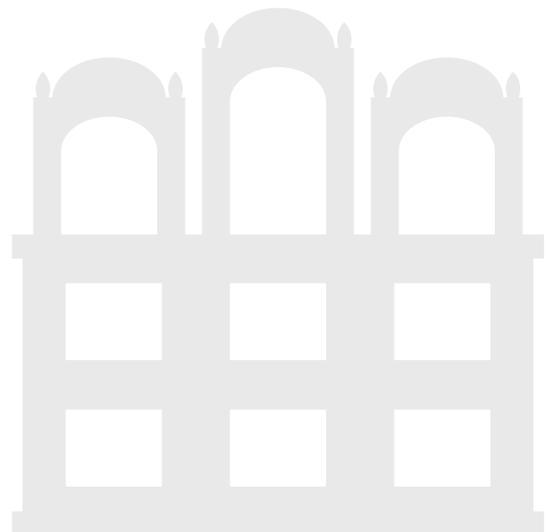
청춘의 열정만 가득한 우리 초선의원들의 모범 의정활동으로 남동구의회를 보다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들 것을 약속합니다. 결코 안주하지 않고 힘차게 행동하고 전진하는 부지런한 남동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따끔한 충고와 벌을 내려주시고 잘한 일이 있으면 진심의 칭찬 부탁드립니다.

칭찬은 남동구의회를 춤추게 하고 남동구를 춤추게 할 것입니다.

오직 주민 편에서, 다시 주민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남동구의회에 모범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초보의원 유광희가 진심의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만수1.6, 장수서창동/남동구의회 부의장) 남동구의회 의원 **이유경**

“정치의 끝은 사랑이다.”



나는 지난 2014년 36살이라는 나이로 비례대표에 도전해 인천 최연소 여성구의원으로서 7대 의원을 지냈고 2018년 지방선거에 도전해 재선의원이 되었다.

지난 4년간을 되돌아 보면 집에서도 뛰어 다녔다고 말할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큰딸이 9살, 아들이 4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하는 일에 대한 낯설음 속에서 일, 육아, 그리고 새로 시작한 야간행정대학원 공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등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다.

시간이 모자라 새벽 4시에 일어나 레포트와 시험공부를 하고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생활 속에서 큰 아이의 머리에 머릿니가 생기는 일도 있었다.

어린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한편으로 젊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함에 보람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교차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 일과 육아를 병행해 해본 엄마들은 다들 공감할 것이다.

남성의 경우 일을 하면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 하지만 여성은 일과 동시에 육아, 집안일, 식사준비, 시댁, 친정 대소사 챙기기 등 멀티로 해내야 한다. 나는 이러한 현실을 원망하기보다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집중했다.

그렇게 얻은 결론은 여성이 일을 잘하기 위해선 시간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 속에서 시간부자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시간을 얼마나 잘 계획하고 실행하느냐를 말하는 것이다.

나는 3P 바인더라는 교육법을 배웠고 그 결과 내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을 해낼 수 있었다.

시간관리의 가장핵심적인 부분은 새벽시간을 활용해 나의 집중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4~5시에 일어나 7시까지 책읽기와 레포트 쓰기, 빨래, 청소, 반찬 만들기 등 그날 할 공부와 집안일을 마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내면은 가벼워 졌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었다.

힘들고 지칠 때면 일과 육아, 또 새로운 공부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에 대해 내 자신에게 물어 보았다.

나는 내가 선거를 치루게 되는 지역에서 지난 28년 동안 없었던 최초, 재선 여성구의원인 되고 싶었다. 또 내가 가장 애정을 쏟았던 하브루타 부모교육(유대인 자녀교육법)에 대한 비전을 이어가고 싶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개방적인

(만수1.6, 장수서창동/남동구의회 부의장) 남동구의회 의원 **이유경**

“정치의 끝은 사랑이다.”



미국에서조차 “남성전용클럽”이라고 불릴 정도로 보수적인 정치세계에서 여성도 재선할 수 있다는 상징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여성후배들도 정치를 계속 할 수 있는 길목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

나의 바램대로 나는 재선이 되었고 남동구의회가 생긴 이래 최연소 부의장이라는 직함도 갖게 되었다. 의원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매일매일 나를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생각하고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은 여성이라면 훨씬 그 사랑에 가까워 질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여성은 목숨을 걸고 임신, 출산을 하며 대부분의 것을 포기해 가며 아이를 키운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에 대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더 넓고 깊은 사랑을 정치에 쏟을 수 있다. 이것이 여성이 정치를 하고 재선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의정활동을 할 때 나는 항상 생각한다. 이것이 참된 사랑일까? 그 기준에 따라 내 양심에서 물어보고 행동하려고 애쓴다.

이제 우리정치는 보수인가? 진보인가? 보다 진심이 담긴 국민들에 대한 올바른 사랑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감동하는 것은 진영논리보다 진심이 담긴 마음과 올바른 판단일 것이다.

여성이자 어머니며 정치인인 나는 외친다.

“정치의 끝은 사랑이다!”

—세상에서 가장 능력있는 여자로 만드는 3가지 원칙—

1. 삶에 대한 긍정적인 두려움을 가져라
2.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룰수 있다고 믿어라.
3. 일보다 가정을 중요시하라.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중에서.

(비례대표/사회도시위원회) 남동구의회 의원 **강경숙**

변하지 않는 초심으로 55만 구민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남동구 의원 강경숙입니다.

구민여러분을 위하여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지역주민의 마음과 남동구의 미래를 생각하며 살기 좋은 남동구! 행복이 넘치는 남동구! 웃음꽃이 피는 남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과는 배려를, 주민을 위해서는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7년만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의 현실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하루하루를 외로움과 고독함, 우울함 그리고 노년을 쓸쓸하게 보내야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시간도 독고어르신들은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손잡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며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서글프고 가슴아픈 사연들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저의 작은 힘이나마 남동구 독고어르신의 복지를 위해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우리사회의 고독사와 자살문제는 국민모두가 힘을

모아 해결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함께 해결한다면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남동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원도심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시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구민을 대변하는 모범적인 의원이 될 수 있도록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며 겸손과 부지런함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가정에는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례대표/총무위원회) 남동구의회 의원 **반미선**

소통의 첫걸음은 구민과의 만남입니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남동구의회 반미선 의원입니다.

초선으로 남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업무에 매진하며 다니다 보니 어느덧 7~8월이 다 지나 갔습니다.

저는 간호사로 의료기관에 근무하다가 노인복지와 요양보호사 교육원 운영, 노인요양시설 시설장으로 복지사업에 뛰어들어 가장 밑바탕에서부터 지역사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남동구민을 위해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남동구민의 안위와 경제 활성화에 제가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할지를 많은 고민속에 남동구의회에 입성하였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과 소통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노력을 하려 하나 아직은 정확한 방향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통은 의정활동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첫걸음은 구민들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과 다양한 만남을 통해 지역의 문제점을 함께 풀어나가야 소통이 이뤄집니다.

지켜봐주시면서 든든한 지원과 함께 때로는 따끔한 채찍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년동안 열심히 지역주민과 함께 부딪히며 최선을 다해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 문제는 저 출산 고령사회에서 우리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저는 노인복지 전문가로서 복지관련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것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하여 독거노인어르신들의 복지사각지대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년의 편안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남동구, 아이가 행복한 남동구, 안전하고 삶이 풍요로울 수 있는 남동구를 위한 노력을 4년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들어 가는데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항상 하시는 모든 일에 소원 성취하시고 늘 구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기운영현황

▶ 회기운영

구분	회기별	개회일	폐회일	회기일수
제7대	제244회 임시회	2018. 2. 5.	2018. 2. 13.	9일
	제245회 임시회	2018. 3. 5.	2018. 3. 12.	8일
	제246회 임시회	2018. 4. 20.	2018. 5. 4.	15일
	제247회 임시회	2018. 5. 23.	2018. 6. 6.	15일
제8대	제248회 임시회	2018. 7. 3.	2018. 7. 10.	8일
	제249회 임시회	2018. 7. 16.	2018. 7. 23.	8일

▶ 조례안 및 의안처리

구분	발의·제출			가결			부결	기타	
	계	의원	구청장	원안	수정	채택			
계	38	7	18	20	2	-	6	10	
조례	소계	25	7	18	17	1	-	6	1
	제정	3	3	-	3	-	-	-	-
	개정	22	4	18	14	1	-	6	1
	폐지	-	-	-	-	-	-	-	-
기타 안건	13	-	-	3	1	-	-	9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7대 후반기

제2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2018. 2. 5. ~ 2. 13.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임순애)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8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조영규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춘원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점원 최승원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전유형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원안가결, 신동섭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 제24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처리안건 】

순번	부 의 안 건	회의결과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원안	
6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의회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 위 원 장 전유형
- 부위원장 최승원
- 위 원 서점원, 신동섭
이선옥, 조영규
이유경, 최재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전유형)소속 위원들은 1월 29일 제24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4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제24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인 2월 5일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2018년도 연간 회기운영 변경 계획 협의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원안처리 하였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영규의원 발의/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지방의원 여비지급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남동구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함.



총무위원회

General Affairs Committee

- 위 원 장 임춘원
- 부위원장 최재현
- 위 원 문종관, 서점원, 박인동, 한민수, 이유경

총무위원회(위원장 임춘원)소속 위원들은 제24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5차의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정책을 전담할 행정기구 설치(환경녹지국 신설), 이에 따른 정원 및 사무위임 사항으로 현 인원충원(정원증가)없이는 실효성이 없어 부결처리 함.
-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임춘원의원 발의/원안가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이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함.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서점원 · 최승원의원 발의/원안가결)
 그동안 식품의 유통, 판매 등 식품류의 안전에만 집중되었던 정책적 한계를 구민들의 식생활개선과, 그것을 통한 환경에 대한 배려,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함.



사회도시위원회

Social and Urban Committee

- 위원장 **이오상**
- 부위원장 **신동섭**
- 위원 **민창기, 이선옥, 조영규, 최승원, 전유형, 한정희**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오상)소속 위원들은 제24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5차의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신동섭의원 발의/수정가결)

상위법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 재향군인회의 효율적이며 원활한 운영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수정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보훈예우수당이 2018년부터 시비보조금으로 일부 지원됨에 따라 인천시와 남동구의 지급기준과 지원대상을 일원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수정과 용어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유형 의원발의 / 원안가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중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을 포함시켜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상위법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인천시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적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옥외광고물 관련 제도 권익개선사항을 포함시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함.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7대 후반기

제24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2018. 3. 5. ~ 3. 12.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임순애)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9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임춘원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했다.

또한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으로는 최재현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조동희, 심강수, 고봉성, 정해설 5명을 선임처리 하였다.

【 제24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처리 안건 】

순번	부 의 안 건	회의결과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	
3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6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13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원안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전유형)소속 위원들은 2월 26일 제2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4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였고, 제24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인 3월 5일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았다.

의회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 위 원 장 전유형
- 부위원장 최승원
- 위 원 서점원, 신동섭, 이선옥, 조영규, 이유경, 최재현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

◆ 수감부서 : 의회사무국

구 분	지적사항 (건)				비 고
	계	시정	건의	기타	
의회운영위원회	2		2		



총무위원회

General Affairs Committee

- 위 원 장 임춘원
- 부위원장 최재현
- 위 원 문종관, 서점원
박인동, 한민수
이유경

총무위원회(위원장 임춘원)소속 위원들은 제24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차의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예비심사하고, 공유재산(소래어시장 신축) 관리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

- ◆ 수감부서 : 기획예산실, 공영개발사업단,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공단

구 분	지적사항 (건)				비 고
	계	시정	건의	기타	
총무위원회	32	4	28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경정책을 전담할 환경녹지국을 설치하여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조성 역점 추진 및 문화와 체육의 기능을 분리해 구분청에 1국 2과를 증설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1개과를 감하는 사항으로 인원충원(정원증가)없이는 실효성이 없어 부결처리 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반장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반장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소래어시장 신축)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문을 개정해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래어시장 신축공사 관리 계획안은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소래포구 상인들이 현 부지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어시장 상인들이 남동구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이후 구에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하면 상인들은 건물을 무상으로 토지는 유상으로 하여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임춘원의원 발의/원안가결)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용사업 화장품 사업 등 뷰티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뷰티산업 관련 행사 등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 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 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 조례의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 저장시설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이며,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보조대상의 선정 및 절차를 구체화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람의 형평성 및 지역 현황을 고려해서 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함.

사회도시위원회

Social and Urban Committee

- 위 원 장 이오상
- 부위원장 신동섭
- 위 원 민창기, 이선옥
 조영규, 최승원
 전유형, 한정희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오상)소속 위원들은 제24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차의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예비심사 하였다.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

- ◆ 수감부서 :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남동다문화사업소

구 분	지적사항 (건)				비 고
	계	시정	건의	기타	
사회도시위원회	28	4	2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해당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등의 제출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와 관련한 조문이 신설되어 상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설치 기준을 2분의1 범위에서 완화하고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발의/원안가결)

성장이 어린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자 유치원 시설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에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함.



인천 남동구의회 제246회 정기회의 모습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7대 후반기

제24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2018. 4. 20. ~ 5. 4.

인천 남동구의회는 4월 20일 오전 11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4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에 제출된 의원 사직 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했다.

사직처리된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7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1조에 의거 3월 22일자 남동구 가선거구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 3월 27일자 남동구 나선거구 박인동 의원, 3월 30일자 남동구 나선거구 서점원 의원, 같은날 남동구 마선거구 한정희 의원, 4월 9일자 남동구 나선거구 임춘원 총무위원장, 4월 13일자 남동구 라선거구 임순애 의장, 4월 17일자 남동구 마선거구 한민수 의원으로 총 7명이다.

제24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6차까지 본회의를 열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7대 후반기

제24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2018. 5. 23. ~ 6. 6.

제24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5월 9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8대 전반기

제24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2018. 7. 3. ~ 7. 10.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는 7월 3일 제8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과 함께 개원식을 갖고 4년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개원식에 앞서 진행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여 의장에 최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 부의장에 이유경 의원(자유한국당, 여)을 각각 선출했다.

4일, 2차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여 총무위원장에 황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 사회도시위원장에 이선옥 의원(자유한국당, 여), 의회운영위원장에 김윤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이 선출됐다.

10일 3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원안가결 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윤숙)소속 위원들은

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위원장으로 김안나 의원 (더불어민주당, 여)을 선출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10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연간 회기 운영 변경 계획 협의의 건 ▲제2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 위 원 장 김윤숙
- 부위원장 김안나
- 위 원 오용환, 정재호
이정순,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총무위원회

General Affairs Committee

- 위 원 장 황규진
- 부위원장 이정순
- 위 원 민창기, 임애숙
신동섭,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총무위원회(위원장 황규진)소속 위원들은

제24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차의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위원장으로 이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을 선출하고,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사회도시위원회

Social and Urban Committee

- 위 원 장 이선옥
- 부위원장 강경숙
- 위 원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선옥)소속 위원들은

제24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차의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위원장으로 강경숙 의원(자유한국당, 여)을 선출하고,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8대 전반기

제2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2018. 7. 16. ~ 7. 23.



인천시 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는 23일 제24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7,548억원중 (본예산 7,264억원 대비 3.9% 증가) 19백만원을 삭감, 수정 가결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 됐으며, 사회적 경제 발굴, 육성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경제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사업에 문화행사는 물론 체육까지 확대토록 수정가결 됐다.

일반안건 중 간석성락아파트구역/십정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건은 모두 원안채택 됐다.

【 제24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처리 안건 】

순번	부 의 안 건	회의결과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3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	
6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원안	
7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8	십정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원안	

의회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 위 원 장 김윤숙
- 부위원장 김안나
- 위 원 오용환, 정재호
이정순,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윤숙)소속 위원들은

1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국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했다.



총무위원회

General Affairs Committee

- 위 원 장 황규진
- 부위원장 이정순
- 위 원 민창기, 임애숙
신동섭,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총무위원회(위원장 황규진)소속 위원들은 제24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차의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소관부서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예비심사 했다.



총무위원회

General Affairs Committee

- 위 원 장 황규진
- 부위원장 이정순
- 위 원 민창기, 임애숙
신동섭,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구정방향인 소통 협력과 섬김행정 구현을 위한 조직 보강 및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 수요를 반영한 조직 신설로 구민과의 소통 강화 및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최소한의 조직개편으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8년도 조직개편 및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를 증원하고 불합리한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함.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간석2동 청사 신축부지 추가 매입건으로 2016년 제234회 2차 정례회에서 구의회 의결을 득한 사항이나 주차면수 추가 확보와 신청사 주변에 일방통행로 진입로로 인해 발생하는 접근성 문제 해결 및 보행로 확보를 위해 신축 부지에 접한 2개 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 신청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신설 확대하는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우수아이템 발굴 육성 등 인식 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기반 구축 및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 사업에 문화 행사는 물론 체육까지 확대토록 수정가결 함.

사회도시위원회

Social and Urban Committee

- 위 원 장 이선옥
- 부위원장 강경숙
- 위 원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선옥)소속 위원들은 제24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차의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간석성락아파트구역/십정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원안채택을 하고 소관부서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예비심사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Settlement

- 위 원 장 반미선
- 부위원장 이용우
- 위 원 김안나, 이정순
조성민, 이유경
강경숙

제24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6일 ▲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위원장에 반미선 위원, 부위원장에 이용우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7월 20일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Settlement

- 위 원 장 반미선
- 부위원장 이용우
- 위 원 김안나, 이정순, 조성민, 이유경, 강경숙

2018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83억6700만원 증가한 7548억3200만원으로 편성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액보다 4.09% 증가한 7158억 7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0.58% 증가한 389억 5800만원이다.

7월 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결과를 반영하여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 1건 1900만원을 삭감 수정 가결하였다.

1.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1회추경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액	증감률(%)	비고
합 계	754,832,106	726,464,453	28,367,653	3.90%	
일반회계	715,873,662	687,730,050	28,143,612	4.09%	
특별회계	38,958,444	38,734,403	224,041	0.58%	



5분자유발언 5minutes Speech

논현 1.2동 , 논현고잔동
민 창 기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의원 민창기입니다.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남동구의회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강호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소래IC건설 연내 착공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내공사는 2000년 11월 24일 영동고속도로 구간에 소래IC 공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비 450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내공사 책임 하에 소래IC공사를 시공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각종 문제로 인해 18년이 지난 2018년 7월 16일 현재까지 이 공사를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소래IC 건설 추진 배경은 논현2택지개발사업과 한화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18년전에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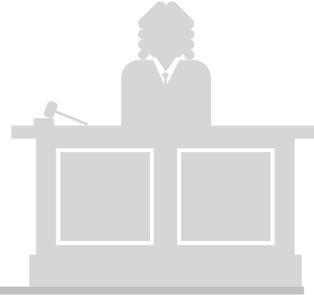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영동고속도로 안산IC에서 서창IC까지 상습 정체 구간으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사항을 토대로 소래IC 건설을 즉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당초 소래IC 건설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일원 소래푸림아파트와

5분자유발언 5minutes Speech

논현 1.2동 , 논현고잔동
민 창 기



주공14단지 구간의 계획이며 소래포구와 근접해 있습니다.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이 완공되면 이에 따른 교통 수요가 많을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착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이용하는 논현동 고잔동 주민들과 소래포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정왕JC쪽으로 갔다가 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래IC 건설이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논현동 고잔동 주민 및 상공인들로서는 소래IC 건설 추진은 이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영동고속도로 확장 공사시에 함께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올해 실시 계획을 시작하여 이 설계만 약 2년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영동고속도로 확장 공사 진행할 시 소래IC를 착공하게 된다면 앞으로 4, 5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며 실제 소래IC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7, 8년 이내나 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소래IC 건설을 영동고속도로 확장시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와는 별도로 당초에 계획된 지역에 소래IC 건설을 착공 및 준공하여 사용하다가 향후 영동고속도로 확장시에 고속도로와 소래IC가 접목하는 부분만 별도로 공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경제 가치가 더 높다고 봅니다.

물론 공사비가 다소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4, 5년을 앞당겨 건설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는 것이 더 소중한 가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역 주민의 20% 반대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떠한 국책사업도 주민의 100%동의를 얻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음 문제나 먼지 문제 등은 최신공법을 사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고 최근에는 기존에 반대하던 분들도 현재는 찬성하는 쪽으로 많이 전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시청과 남동구청이 상호 업무를 분장하여 소래IC건설이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후배 의원여러분,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남동구민 여러분 인천시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 및 의회 이모저모





의정활동

Parliamentary activity

남동구의회 2017년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촉장 수여



4월 11일부터 20일간 실시,
대표에 최재현 위원 위촉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장 임순애)는

3월14일 의장실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5명으로 최재현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으며, 재정·회계분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4명(조동희·심강수 회계사, 고봉성·정해설 세무사)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11일부터 4월30일까지 20일 동안 지난 2017년도 구에서 운영한 예산의 세입·세출 및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각종 기금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의정활동 Parliamentary activity

남동구의회의원 매니페스토365캠페인 소통대상 수상



매니페스토365캠페인 소통대상 수상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순애 의장과 문종관 부의장, 최재현, 민창기 의원이

매니페스토 365캠페인 한국본부가 주최하는 '매니페스토 365캠페인 소통대상'에서 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매니페스토 365캠페인 소통대상'은 2008년부터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행된 시상제로 지난 1월 전국 기초단체별로 수상자를 공모하여, 남동구의회에서는 임순애 의장이 소통분야 소통대상 최우수상을, 문종관 부의장이 청렴분야 청렴대상 우수상을, 최재현 의원이 사회공헌분야 사회공헌대상 우수상을, 민창기 의원이 문화예술분야 문화예술대상 우수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의정활동

Parliamentary activity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남동구의회 당선증 수여식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남동구의회 당선증 수여식

인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5.(금) 남동구청 7층 소강당에서 6.13.(수)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을 개최했다. 이날 교부식에선 구청장, 시의원 당선인을 비롯해 15명의 구의원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의정활동
Parliamentary activity

제8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제8대 남동구의회 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제8대 남동구의회 의원 당선자

제8대 남동구의회 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을 6월 20일 남동구의회 중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당선자 1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간 상견례, 제8대 의회 개원관련 의사일정 안내와 의원등록 및 검직신고, 의원배지 교부 등 제반사항에 대해 설명이 이뤄졌다.

이후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의회운영 전문위원의 실무특강과 질의응답을 마지막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쳤다.



의정활동

Parliamentary activity

남동구의회 청소년의정아카데미 실시



인천시 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가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을 위해 7월13일 '의정 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이날 실시된 의정 아카데미에는 정각중학교에서 29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연혁과 지방의회의 권한, 남동구의회 의원현황, 의회에서 자주쓰는 용어 등을 교육받았다. 이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1회 청소년 모의의회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안건을 상정, 5분 자유발언, 제안설명, 검토보고, 구정 질의답변, 찬반토론 및 표결 등을 실시해 실제 조례제정 과정을 몸소 체험했다. 청소년 모의의회가 끝난 후 학생들은 최재현 남동구의회 의장과 지역구(구월2동, 간석2,3동)의원인 신동섭, 이정순, 조성민 의원과의 만남을 가지고 의원들의 덕담과 함께 기념촬영을 가졌다. 최재현 의장은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8대 의회를 소개하고 "지금 학생들이 하는 회의와 똑같이 의원들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정치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아카데미에 참여한 학생들은 '직접 회의를 진행해 보니 재밌고, 도움이 됐다'면서 '우리구의 구의원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더욱 잘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의정활동 Parliamentary activity

제8대 남동구의회 의장단 유관기관 방문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는

전반기 의장단의 유관기관 소통행보가 7월 26일 마무리된 가운데 총 22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7월 23일 남동경찰서를 시작으로 진행된 유관기관 방문은 총 17개소로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일 많은 5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인천 공단소방서 4건, 남동경찰서가 3건, 이외 기관에서 1~2건 등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중 주민안전 및 주민편의,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협조 요청건은 전체 13건으로 59%를 차지해 유관기관 에서도 주민안전망 구축과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동소방서와 인천 공단소방서에서 요청한 화재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관련 조례 제정 건은 남동구 관계 부서에서 오는 9월 조례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 출동 곤란지역(남촌동 등 9개소)에는 주차금지 표시봉 설치 및 주정차 단속 CCTV설치를 요청했다.

최재현 의장은 “이번 유관기관 방문은 지난 7대에서 나타난 소통부족을 느끼며 추진한 것으로, 함께한 의장단도 만족도가 높았다”면서, “유관기관에서는 제8대 의회에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기관에서 요청한 의견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조해 의회가 균형적인 상호동반자적 역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소방서]



[국민연금공단]



[남동경찰서]



[남동소방서]



[한국산단
인천지역본부]



[운전면허시험장]



의정활동

Parliamentary activity

남동구의회 역대의장과 간담회 개최



바른의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 의회를 기치로 내건 제8대 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의장단이
유관기관 방문에 이어 역대 의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소통릴레이를 이어갔다.

7월 31일 의장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선배의장들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최재현 의장은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지역주민과 상인, 상인과 상인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의회가 집행부와 더불어 주민들의 피로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역할을 다 하겠으니, 선배
의장님들께서도 많은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재현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천종만(제3대 1기 의장), 신현필(제3대 2기 의장),
천정숙(제3대 3기 의장), 윤창열(제5대 의장), 안희태(제6대 2기 의장), 한민수(제7대 1기 의장), 임순애(제7대
2기 의장)등 역대 의장 7명이 참석했다.

남동구 간석3동 자율방범대, 새해 배식봉사 활동



[국민TV 김권범 기자]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자율방범대원들이 무술년 새해를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대접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간석3동자율방범대는 13일 간석1동 새인천교회에서 지역 어르신 150여명을 초청해 대원들이 손수 마련한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이날 배식봉사에는 간석3동 자율방범대원 및 대원자녀들과 남동구의회 최재현, 박인동, 최승원, 신동섭 의원,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새인천교회(서은배 목사)는 매주 토요일 어르신들에게 점심대접을 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구의회, 버스정류장 부스 설치 대립

인천 남동구와 구의회가 버스정류장 부스 설치를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남동구는 주민 편의를 위해 버스정류장에 부스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의회는 지방선거 이후 추진해도 무리가 없다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17일 남동구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해 제242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남동구 버스정류장 부스 설치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구는 당초 예산 15억 원을 투입해 정류장 162개소에 부스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구의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은 3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부스 설치 정류장도 22개소로 줄었다.

논현고잔동 등 지역 주민들은 지역 내 버스정류장에 부스를 설치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구는 주민 편의를 고려해 자체적으로 부스 설치를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버스정류장 부스 설치는 인천시의 고유업무지만 관련 민원과 주민 편의를 고려해 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다른 구를 비교해봐도 구청이 부스 설치를 진행하는 곳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주민들을 위해 활동

을 해야 하는 기초의회 의원들이 정치적 셈법만 고려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부스 설치 사업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새 구청장 체제 하에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소속 구청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주민 편의 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한 구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명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이라며 “다음 구청장때 해도 된다는 입장인데, 주민편의 사업을 정치적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기초의원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남동구의회, 제244회 임시회 개최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임순애)는 2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 24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조영규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춘원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점원·최승원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신동섭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유형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임순애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 한해에는 구민들을 위한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세우기보다는 제7대 남동구의회 출범과 함께 구민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 중

지키지 못한 일들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어 55만 구민의 행복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16명의 의원 모두가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이창재 취재본부장 jn250@naver.com

〈저작권자 © 저널25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의회,공무원 증원없는 환경녹지국 증설 반대 '제동'



▲ 12일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안건 심의 모습.

인천 남동구의회가 집행부(구)의 환경 녹지국 증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구의회 총무위(위원장·임춘원)는 12일 국 증설을 위해 구가 상정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부결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구의회는 정원 증원 여력이 있는데도 증원을 하지 않고 단순히 국만 증설한다는 것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 같이 결정했다.

상임위는 정회 중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이들 안건을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지역 구·군 중 처음으로 환경녹지국 증설을 통한 5개국 체제로 운영키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

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구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국 증설과 함께 기준 인건비 기준 43명의 인력을 증원할 수 있어 일반 공무원들과 구의회 등으로부터 정원 증원을 요청 받았었다.

앞서 구는 기존 4개국을 분리해 환경 녹지국을 증설하고, 정원 1006명 중 일반직 4급 6명을 7명으로 늘리고, 일반직 6급 이하 933명을 932명으로 1명 감소하는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구의 한 관계자는 "어렵게 국 증설을 행안부로 부터 승인받았는데, 정원 증원을 이유로 구의회가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정원 부족은 한시직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공무원 증원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주민의 뜻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동구의회, 제244회 임시회 폐회



© 세계타임즈

[남동구=세계타임즈 심동윤 기자] 인천 남동구의 회(의장 임순애)는 13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영규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춘원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전유형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신동섭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재향군

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부결되었다.

다음 제24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는 3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 증설, 정원 증원 심의' 구의회, 제245회 임시회 개최



인천 남동구의회(의장·임순애)는 5일 1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5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했다.

6~9일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심사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 안건으로는 ▲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임춘원), ▲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 등 2건,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다.

또 공유재산(소래어시장신축) 관리계획(안) 등이 상정됐다.

특히 안건 중 환경녹지국 증설과 구공무원 정원 40명 증원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 심의에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회기 때 의회는 공무원 정원 증원없이 국 증설은 의미가 없다며 부결했다.

상정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남동구의회, 제245회 임시회 개회



▲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임순애)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어 3월 1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했다.

6일부터 9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심사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조례 안건으로는 임춘원의

원이 발의한 ▲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의원이 발의한 ▲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며, 기타 안건으로 공유재산(소래어시장신축) 관리계획(안) 등이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권윤숙 기자 press@incheonnews.com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환경녹지국 증설 · 공무원 정원 40명 증원'무산'

"임기말 조직 개편 부적절" 구의회 제동,구 " 정치,보복 심의 반발"



▲'구 행정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개정 조례(안)을 다룬 구의회 총무위 모습.

인천 남동구의 환경녹지국 증설과 공무원 정원 40명 증원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남동구의회는 9일 총무위를 열어 집행부(구)에서 국 증설과 공무원 정원 증원을 위해 상정한 '구 행정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개정 조례(안)을 심의해 부결했다.

구의회는 " 민선 6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을 증설하고, 실제 인력 확보가 안되는 상태에서 공무원 정원만 늘린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 행정기구 개편과 정원 증원 등 조직 개편 문제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지적했다.

안건 심의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심의시 불참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건 통과를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선 6기내 1개국 국 증설과 공무원 정원 4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 할 전망이다.

집행부는 구의회 심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구는 인구 50만명이 넘는 전국 5개 중대도시 중 유일하게 행안부로 부터 국 증설을 승인 받았는데도 이를 반영하는 못해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는 행정적인 관점 보다는 정치적, 감정적인 심의라고 비난했다.

구의 한 관계자는 " 지난 임시회 때는 정원 증원이 없는 국 증설을 반대 했다가 구가 요구대로 공무원 정원을 증원을 하자 이전 민선 7기 조직개편 때 하라고 한다" 며" 이는 구의회 오만이자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판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남동구의회, 제245회 임시회 마무리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임순애)는 지난 12일 제 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11의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조례안 심사 및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이 다뤄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춘원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최

재현의원을 선임하였다.

강경환기자 ghgang@sidaeilbo.co.kr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동구 · 구의회 '끝없는 대립'

구청장 임기 얼마 안남아... 증설 무의미 행정서비스 못해 주민에게 피해 돌아가



▲ 인천 남동구청사.

남동구의 환경복지국 증설과 인원 40명 증원 계획이 무산됐다. 이는 남동구의회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증원 조례를 잇따라 부결했기 때문이다.

2017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그해 12월 29일 인구 50만명이 넘는 전국 4개 주요 도시 중 유일하게 인천 남동구가 행정기구 증설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남동구는 폭증하는 행정 수요를 대처키 위해 지난 2월 제244회와 3월 제245회 임시회에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구의회는 부결사유로 "민선 6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을 증설

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행정기구 개편 문제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남동구는 "앞서 부결에 따라 구의회가 요구한 대로 공무원 정원 증원을 포함해 의안을 재 상정했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재차 부결한 것은 집행부에 대한 지나친 견제"라고 밝히고 있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남동구 의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감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이번 부결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구민일 수밖에 없다는 원성도 들리고 있다. 또한 의회가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등 우려 섞인 불멘 목소리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의회가 새로 구성돼 정원증원과 조직개편 개정 조례안 처리가 하반기로 늦어지게 되며, 인사마저 이때 단행될 수밖에 없다"면서 "업무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수요에 대해 적시 대처하기 위한 조례안을 부결한 것은 매우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해 위임된 사무를 관리·집행하는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조례안 제안을 갖고 있다.

박근식 기자 pgs@1gan.co.kr

남동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위촉장 수여

4월 11일부터 20일간 실시 · · · 대표에 최재현 위원 위촉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장 수여 ©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임순애)는 지난 14일 의장실에서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5명으로 최재현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으며, 재정·회계분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4명(조동희·심강수 회계사, 고봉성·정해설 세무사)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 동안 지난 2017년도 구에서 운영한 예산의 세입·세출 및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각종 기금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임순애 의장은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지난해 남동구가 집행한 전 분야의 예산에 대하여 당초 목적에 맞게 잘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검사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선심성, 낭비성 없이 적법·적정하게 쓰였는지를 심도 있게 검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윤숙 기자 press@incheonnews.com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 남동구의회 매니페스토 소통상

"임기말 조직 개편 부적절" 구의회 제동, 구 " 정치,보복 심의 반발"



▲ 문종관 · 임순애 · 최재현 · 민창기

인천 남동구의회 임순애 의장과 문종관 부의장, 최재현 · 민창기 의원이 '매니페스토 365캠페인 한국본부'가 주최한 소통대상 시상식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매니페스토 365캠페인 소통대상은 2008년부터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행된 시상식이다.

본부는 올 1월 전국 기초단체별로 수상자를 공모했다. 남동구의회에서는 임순애 의장이 소통분야 소통대상 최우수상, 문종관 부의장은 청렴대상 우수상, 최재현 의원은 사회공헌대상 우수상, 민창기 의원은 문화예술대상 우수상을 각각 받았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남동구의회 잣밥에만 관심...추경은 나몰라

2달여 남은 의장자리 놓고 파행 거듭



[국민TV 김권범 기자] 인천시 남동구의회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처리를 위해 지난 20일 제246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2달 남짓 남은 의장자리를 놓고 파행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속개된 본회의장에 한국당 소속 구의원들이 입장하지 않아 텅 비어있다.©김권범

남동구의회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개최한 뒤 집행부의 추가경정예산안처리에 앞서 시의원 출마로 의장직을 사퇴한 자유한국당 임순애 의장 자리를 놓고 다수 의석을 점유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선출부터 할 것을 요구해 이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미래당 의원들과의 충돌로 정회하고 결국 이날 오후 9시 산회했다.

의회는 23일 오전 11시 속개했으나 이번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아 또다시 정회했다.

한국당 소속 민창기, 신동섭, 이선옥, 이유경, 전유형 의원 등은 이선옥 의원을 차기의로장으로 내정하고 다수의석을 앞세워 추

경(안) 처리에 앞서 의장 선출을 먼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조영규, 최재현 의원과 미래당 문종관 의원(부의장), 정의당 최승원 의원 등은 집행부에서 올린 추경(안) 등부터 처리하고 의장 선출 건을 다루어도 되는데 2개월 남짓 남은 의장자리를 놓고 의장 선출부터 하자는 것은 또 다른 꼼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시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 그동안 부결 처리된 안건과 1국 증설을 위한 '정원 및 행정기구 조례'안을 직권상정하기 위한 꼼수로 의장 선출부터 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남동구의회는 총 16명 의원 중 민주당 소속 의원 4명(박인동, 서점원, 이오상, 한정희)이 시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했으며, 한국당 소속 3명(한민수, 임춘원, 임순애)이 사퇴하면서 현재 의석수는 한국당 5석, 민주당 2석, 미래당 1석, 정의당 1석으로 재편됐다.

남동구의회 본회의 시작부터 충돌

의장·상임위원장 재선출 입장차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회의를 열게 된 인천 남동구의회가 시작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의원들이 시의원 출마로 사퇴한 의장·상임위원장 재선출 여부를 두고 의견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서다.

22일 남동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24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제24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됐다.

그러나 이 안건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의원들이 의장·상임위원장 재선출에 대해 입장차를 보여 정회와 의원총회만 이어졌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재선출이 필요하다는 반면 나머지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이 의사봉을 잡을 경우 직권상정으로 그동안 부결된 조례들이 날치기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이들은 특히 조례에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가 포함될 게 분명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새로운 국이 신설돼 특정한 측근을 승진시킬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현재 남동구의회 의원 수는 한국당 5명,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등 4명이다.

결국 의원들은 전문위원에게 의장·상임위원장 재선출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부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정상적인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종관(바른미래당·논현1·2동, 논현고잔동) 구의회 부의장은 "비슷한 시기에 본회의를 연 서구와 남구의회는 부의장에게 의장 직무를 맡겼다"며 "의장과 상임위원장 재선출을 주장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회에 부의장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한 상태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추경안 편성 서두르는 남동구 "의회 정상화하라"

의원들 여전히 의견차 못 좁혀

인천 남동구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시급하다며 파행 중인 의회에 정상화를 촉구했다. <인천일보 4월23일자 18면>

의원들은 여전히 의장과 상임위원장 재선출 여부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24일 남동구에 따르면 이날 11일 올해 총 예산에서 226억원이 증가한 7490억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예산안에는 소래포구 현대화사업 토지보상비 24억원과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19억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간석2동·장수서창동 청사 신축비 53억8000만원,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비 15억원도 반영됐다. 이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비 7억원과 논현도서관 공사비 18억7000만원, 만부마을도시재생사업 선투입 사업비 4000만원 등이 있다. 또 앞서 부결된 여성회관 건립 조례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매입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원들이 의장·상임위원장 재선출 여부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선출을 요구하는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에 남동구는 "이번 추경은 정부와 인천시 보조금 변동분과 시급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며 "주민 편의와 직결된 사항으로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추경이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승원(간석3·만수2·3·5동·정의당) 의원은 "소래포구 토지보상비 외에 만부마을 사업비 등은 하반기에 편성해도 된다고 알고 있다"며 "계획에 없던 추경을 급히 추진하는 것은 부결된 조례를 날치기 통과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바른미래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지방자치법에는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장 재선출을 빌미로 의회를 파행으로 몰지 말고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인천 남동구의회 "누구를 위한 의장 보궐선거인가?"

문종관 부의장과 일부 의원들 성명서 발표... "한국당은 의장보궐선거 주장 말고 현안심의 협조하라"



▲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의회 문종관 부의장은 일부 의원들과 함께 제256회 임시회 파행과 관련,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남동구의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의장 직무대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남동구청 집행부 및 집행부를 동조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시작된 남동구 임시회는 개회하기 전에 의장보궐선거를 주장하는 측과 6.13지방선거 출마로 다수의 의원이 사직하여 의회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다수의 수적 우위와 의장선출을 통해 직권 상정을 막으려는 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동구의회는 지난해 12월에 작성된 2018년도 의회 운영계획에 따라 지난 3월 제245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7대 남동구의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

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7명의 의원들이 사퇴를 한 상황이다.

그러나 4월 6일 집행부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소집요구가 있어, 관련법에 따라 4월20일~26일까지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문 부의장 측은 "본회의 첫날부터 의장보궐선거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 불참으로 의사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3일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여야의 의석수 균형이 깨진 현 시점에 그동안 부결되었던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상식을 저버린 행위이며, 이는 구청장이 마지막까지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의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의장보궐선거를 주장하는 일부의원들은 국회법16조 보궐선거 규정으로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53조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라고 되어있고, 제51조는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법16조의 보궐선거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개월의 잔여 임기밖에 남지 않는 시기에 자유한국당은 의장보궐선거로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의장을 빌미로 꼼수가 아닌 집행부에서 요구한 시급한 민생현안 사항을 처리하는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바른미래당 문종관 부의장(의장직대), 더불어민주당 최재현·조영규 의원, 정의당 최승원 의원 등 4명이 서명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2018년 4월 26일(목)

중부일보

2018년 4월 30일(월)

인천시 남동구의회 감투싸움 의정활동 ‘뒷전’

의장선출 문제로 파행 거듭

한국당 “의장 보궐선거해야” vs. 한국당외 “부의장 직무대리”

인천 남동구의회가 의장보궐선거 여부를 두고 의원들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지난 20일 개최한 임시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25일 구의회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의원들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의장 자리를 두고 의장 선출을 위한 의장보궐선거를 열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현재 의장 직무대리를 맡은 문종관 부의장(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일부의원은 국회법 16조 보궐선거 규정을 근거로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 측은 지방자치법 제51조를 근거로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반박하면서 양측 간 입장이 첨예하고 대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문 부의장과 민주당 최재현·조영규 의원, 정의당 최승원 의원은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의장보궐선거로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부의장 등은 “본회의 첫날부터 의장보궐선거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 불참으로 의사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오늘(24일)까지 3일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의장을 빌미로 꿈수가 아닌 집행부에서 요구한 시급한 민생현안 사항을 처리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의회 일정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남동구가 지난 11일 2018년 총 예산 7264억원에서 226억여원 증가한 749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한 추경안 심의도 미뤄지고 있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남동구의회, 국 신설 조례 3번째 재추진... 공무원 노조 반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적 의원 중 7명이 빠진 남동구의회가 의회 일정이 끝난 이후에도 갈등을 빚고 있다.

29일 남동구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달 제245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7대 의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민선 6기 말 남동구가 제출했던 국 신설 관련 조례안은 의회에서 2번 부결 처리됐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의장 직결로 부결됐던 국 신설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움직이면서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와 남동평화복지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 권한대행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한 것은 최근 의결정족수 구성비율을 믿고 의장 직결로 상정해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는 집행부의 끈질긴 시도”라며 “이미 수차례 부결된 문제의 조례안을 의회가 허투루 통과시키기 보다는,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들어서는 민선 제7기 집행부에 맡겨두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적 의원 중 7명의 의원들이 사퇴해 버렸다. 이는 비율로 볼 때 44%의 의석이 줄어들어 사실상 반쪽짜리 의회”라며 “이번 제출된 조례안이 그 내용과 제출 시기상 적절성을 잃은 점을 감안해 차기 집행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반쪽짜리 남동구의회 2번 부결된 국 신설 조례안 놓고 연일 '갈등'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 "바뀐 의결정족수 통과보다 민선 7기 집행부에 맡겨야" 강조



▲'27일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와 남동평화복지연대는 "26일 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 권한대행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직 의원 중 7명이 빠져나가 반쪽 짜리가 된 남동구의회가 의회 일정이 끝난 이후에도 연일 갈등을 빚고 있다. 남동구의회는 지난 3월 제245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7대 의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상태이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재직 의원 중 7명(의석수의 44% 비율)이 사퇴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민선 6기 말 남동구가 제출했던 국 신설 관련 조례안에 대해 남동구의회는 2번 부결 처리한 바 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이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의결정족수가 변경되면서 의장 직결로 부결됐던 국 신설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연일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이다.(인천뉴스 20일자 보도)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와 남동평화복지연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 권한대행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며 "이는 최근 바뀌어버린 의결정족수 구성비율을 믿고 의장 직결로 상정해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는 집행부의 끈질긴 시도이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는 구의회의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의사진행에

대한 선의와 믿음마저 상실케 하는 이유이다"며 "수 차례 부결된 문제의 조례안을 남동구의회가 허투루 통과시키기 보다는, 얼마 남지 않은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들어서는 민선 제7기 집행부에 맡겨두는 것이 상식이자 정도이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이하 남동구지부)는 지난 20일, 이번 제7대 남동구의회 마지막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의 문제점과 제출 시기의 배경에 대한 의문점을 지부입장에 담아 밝힌 바 있다. 남동구지부는 또 "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인 모 의원이 '의장 선출은 구 집행부에서 뽑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진행하려는 것이다'는 발언은 충격이다"며 "이는 의원 당사자가 지켜야 할 비밀이 깎뻑하고 터져 나온 실수였는지의 여부를 떠나, 현 구청장을 위시한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실상 컨트롤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기능자라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제출된 조례안이 그 내용상 그리고 제출 시기상 적절성을 잃은 점을 감안해 6.13 지방선거 이후 차기 집행부에 맡겨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연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서울일보

2018년 5월 16일(수)

시민일보

2018년5월 25일(금)

인천 남동구의회 파행운영에 구민들만 피해

남동구, 추경예산 등 조속한 임시회 소집 요구

(한중덕 기자) 인천시 남동구 현안사항에 대한 시급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 각계에서 커지고 있다. 남동구는 지난 4월 현안사항과 추경 예산 처리를 위해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1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 내부 갈등으로 인해 구의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는 지난 달 20일 임시회를 개최했지만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인 의장·상임위원장 재선출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파행운영 되고 있다. 남동구는 시급한 현안사항과 주민 편의 사업과 관련한 추경예산 처리를 위해 다시 한번 구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구는 먼저, 2018년 총 예산 7,264억원에서 359억여원 증가한 7,624억원 규모의 추경수정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화재로 침체된 소래포구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소래포구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보상비 24억원을 비롯, 2018년 인천시 최초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무상급식 추가분 19억5천만 원을 포함했다. 주민 요구 사업인 간석2동청사와 장수서창동청사의 신축공사비 각 26억, 27억8천만원과 함께 구월1동복합청사 신축공사비 15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으며, ▲노현도서관건립공사비 18억7천만원, ▲담방초교다목적강당건립비 3억6천만원, ▲간석자유시장주변 원도심정비사업 2억9천9백만원, ▲사회복무요원급여 인상에 따른 인상분 1억5천만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장 설치조례' 변경시행에 따른 통반장활동보상금 4억원, ▲일반승강장설치비 7억4천만원 등 주민편의와 관련돼 시급히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 구 관계자는 "정부와 인천시의 보조금 변동 분을 반영하고, 구민의 필요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다"면서, "주민편의와 직결된 현안사업과 각종 필요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이번 임시회 개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는 지난 9일, 남동구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르면 남동구의회는 오는 24일까지는 임시회를 개최해야 한다. 구의회와 구의원들은 구민들을 대표한 심부름꾼이라는 인식을 갖고, 남은 두달여 임기 내이라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 남동구의회, 이번엔 추경 갈등

한국당 "민생 예산 우선 심의를" VS. 민주·바른 "제8대 의회 구성이 먼저"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가 신임 의장 선출 여부를 두고 파행을 거듭한 가운데 이번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두고 의원들간 갈등이 벌어지며 진통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 4월께 추가경정예산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가 소집됐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 선출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들이 의장대행 체제를 고수하면서 결국 파행된 바 있다.

이어 또 한번 임시회가 소집됐으나 이번에는 추경 심의와 관련해 양측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추경 심의와 관련해 우선 민생예산이라고 심의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문종관 의장대행(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최재현·정의당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승원 의원 등 3명은 23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졸속 처리는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의원들이 선거운동으로 참석도 어렵고 심도 있는 심의조차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예산을 졸속으로 처리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고 지적했다.

지방선거를 통해 제8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추경 예산을 심의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추경 예산안 내용과 관련해 "2018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이미 반영된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8대의원이 선출된 후 7월에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제8대 입성한 남동구의회원은...40대 초선에 정당인 많아



▲'제8대 구의원 당선인들. 맨위 줄부터 아래로 임예숙·오용환·민창기·황규진·정재호·김안나·이선옥·이정순·조성민·신동섭·최재현·이용우·김윤숙·이유경·유광희 구의원 당선인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득표율)							계	
			더불어민주당 임예숙	더불어민주당 오용환	자유한국당 민창기	바른미래당 문종관	민중당 홍재영	자유한국당 황규진	자유한국당 정재호		바른미래당 조영규
남동구가선 거구	82,869	47,961	17,444 (37.20)	10,697 (22.81)	9,715 (20.72)	5,255 (11.23)	3,759 (8.01)				46,880
남동구나선 거구	60,966	32,773	17,950 (57.57)	8,294 (26.56)	1,905 (6.10)	3,040 (9.75)					31,179
남동구다선 거구	70,915	35,989	20,996 (61.20)	9,608 (28.00)	3,701 (10.78)						34,305
남동구라선 거구	75,103	42,841	14,805 (36.19)	11,618 (28.40)	7,717 (18.86)	3,316 (8.10)	2,747 (6.71)	996 (0.96)	306 (0.74)		40,905
남동구아선 거구	71,349	39,938	20,421 (53.27)	9,741 (25.41)	2,163 (5.64)	6,009 (15.86)					38,328
남동구바선 거구	80,330	47,098	15,932 (35.29)	7,228 (16.01)	7,597 (16.93)	5,951 (12.29)	2,384 (5.28)	6,444 (14.27)			45,136

▲'구의원 후보 득표 현황

구 살림을 살핀 인천 남동구의회 입성한 구 의원은 어떤 사람들일까?

더불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6.13 지방선거에서 제8대 구의회 의석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0석과 7석 씩 나눠 가졌다.

과반을 무난하게 넘어서 안건 처리에선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을 수 밖에 없다.

제 7대에는 정원 16명 중 한국당 8명, 민주당 6명 미래당 정의당 각 1석으로 야당과 여당, 여성 성향 의원들이 8대8로 팽팽히 맞서면서 충돌이 잦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눈에 띄는 점은 선거구별 2~3명 정원에서 민주당 후보가 사실상 1,2등을 독차지 했다.

최고 득표는 득표율 66.20%을 보인 다 선거구 김안나 당선인, 최저 득표는 득표율 16.01%를 기록한 마 선거구 유광희 당선인이다.

선수는 재선이 최재현(민주) · 이선옥 민창기 · 신동섭 · 이유경(한국) 당선인 5명이고 나머지 12명은 초선이다. 최연소는 만 30살인 조성민 당선인 이고 최연장은 63살인 이선옥 당선인이다. 여성이 9명이다.

직업은 정당인(구의원을 포함) 9명으로 가장 많다. 일부에선 이를 두고 "지역 국회의원이거나 당협 위원장 중심의 공천이 이루어진 것" 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구의회, 제8대 구의원 당선자 초청 오리엔테이션

" 의원 활동은 이렇게 해요."



인천 남동구의회는 20일 중회의실에서 제8대 남동구의회 의원 당선자를 초청해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가졌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당선자 17명이 전원이 참석했다.

오리엔테이션은 ▲구의회 기본현황 및 의사일정 등 안내 ▲의회운영 실무 특강(전문위원 강의) ▲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등 의회 시설 견학 등으로 진행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은 통상 외부에서 진행해 왔으나 이번엔 예산 문제 등으로 내부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실시했다"고 말했다.

8대 남동구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 시작

전반기 의장 최재현 · 부의장 이유경 / 원 구성 마무리... 조례안 처리 돌입



▲ 제8대 남동구의회가 지난 3일 개원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시작했다./남동구의회 제공

인천 남동구의회는 지난 3일 제8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과 함께 개원식을 갖고 4년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개원식에 앞서 진행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단 선거를 실시해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최재현 의원과 부의장에 자유한국당 이유경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제8대 남동구의회는 제7대 보다 1명이 늘어난 17명의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자유한국당 의원 7명으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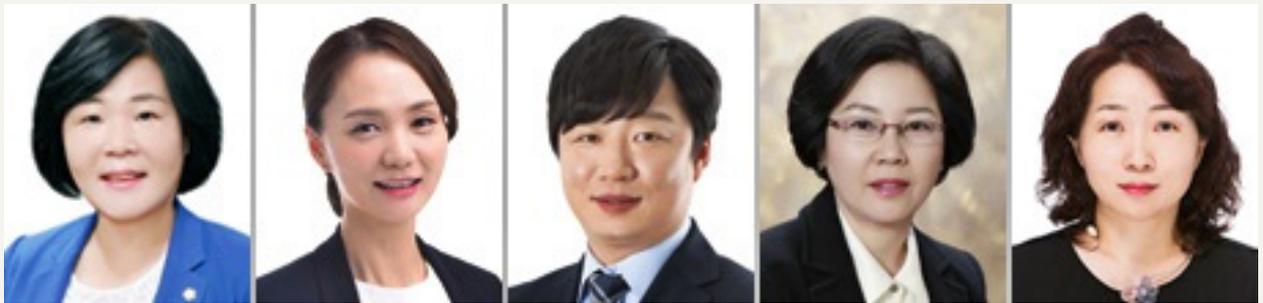
최 의장은 “먼저 남동구의회가 새로운 희망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준 구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주인

의식 없는 감시와 견제자로서의 의식만으로 집행부와 불필요한 갈등과 정쟁에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하고, 지역발전을 통한 구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동반자적 관계로써 동료의원들과 함께 구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의회는 4일 총무·사회도시·운영위 등 3개 위원회의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5일부터 10일까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재호기자 sjh45507@

구의회 원구성 마무리, 황규진 · 이선옥 · 김윤숙 위원장 선출



▲제8대 의장단.왼쪽부터 최재현 의장,이유경 부의장·황규진(총무)·이선옥(사회도시)·김윤숙(의회운영)위원장

인천 남동구의회는 4일 의장 · 부의장 선출에 이어 3개 상임 위원장 뽑는 등 제8회 원구성을 마무리 했다. 구의회는 이날 오전 제 248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총무 · 의회운영위원장에 민주당 초선 황규진 · 김윤숙 의원을 사회도시위원장에 한국당 재선 이선옥 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구분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규진	이선옥	김윤숙
부위원장	이정순	강경숙	김안나
위원(전체)	황규진 임애숙 이정순 김윤숙 반미선 민창기 신동섭 이유경	오용환 김안나 조성민 유광희 이선옥 정재호 이용우 강경숙	김윤숙 김안나 유광희 이정순 오용환 정재호 이용우 강경숙

이들은 비밀 투표에서 참석 의원 15명 전원이 찬성했다. 한국당 신동섭 · 민창기 의원은 전날 부의장 선출에 문제를 제기하며 투표는 물론 본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구의회는 민주당 최재현 의원과 한국당 이유경 의원을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인천시 제8대 남동구의회, 제248회 임시회 폐회

- 제8대 전반기 의장단 상임위 구성 완료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는 지난 10일 제 2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등의 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첫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앞서 남동구의회는 지난 3일과 4일 본회의에서 최재현 의장(더불어민주당)과 이유경 부의장(자유한국당)을 각각 선출하였고, 총무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했다.

각 상임위원회를 살펴보면, 총무위원회는 황규진(위원장), 이정순(부위원장), 민창기, 임애숙, 신동섭,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의원 등 총 8명이 선임되었고, 사회도시위원회는 이선옥(위원장), 강경숙

(부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의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

각 상임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구성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김윤숙(위원장), 김안나(부위원장)의원을 비롯해 오용환, 정재호, 이정순,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의원 등 총 8명이 활동한다.

한편, 남동구의회는 다음 주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9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제1차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뉴스앤뉴스 박종환 기자]

남동구의회, 첫 임시회 일정 마무리

다음주 추경예산안 등 심의 예정



▲ 남동구의회 제248회 임시회 현장 모습. /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의회는 지난 10일 ‘제2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등의 건을 처리하고 8일 간의 첫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남동구의회는 지난 3일과 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재현 의장과 자유한국당 이유경 부의장을 각각 선출했으며, 총무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했다. 각 상임위원회를 살펴보면, 총무위원회는 황규진(위원장), 이정순(부위원장), 민창기, 임애숙, 신동섭,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의원 등 총 8명이 선임됐으며, 사회도시위원회는 이선옥(위원장), 강경숙(부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의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각 상임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구성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김윤숙(위원장), 김안나(부위원장)의원을 비롯해 오용환, 정재호, 이정순,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의원 등 총 8명이 활동한다.

한편, 남동구의회는 다음 주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9회 임시회를 개최해 제1차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신재호기자 sjh45507@

출처 : 경기신문(<http://www.kgnews.co.kr>)

"구의회는 균형과 화합의 장, 감시 기능 소홀히 하지 않겠다"

제8대 남동구의회 최재현 의장 인터뷰 "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력"



"구의회는 균형과 화합의 장입니다. 다양한 주장과 의견들이 서로 맞서고 부딪히면서 '불협화음'을 내는 듯이 보이지만 종국에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단 하나의 목적 아래,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화합의 장이 되어 할 것입니다."

최재현 (55 ·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의회 의장은 12일 <남동뉴스>와의 취임 인터뷰에서 "소임을 맡겨 준 동료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항상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대화 · 소통 · 화합을 통해 신뢰받는 구의회를 만들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중된 권한은 분산되어야 한다. 권한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가 따르기 마련이고 통제나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

이나 권한은 반드시 독선으로 간다는 사실은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며 "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의 본연의 업무인 만큼 이를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이 일환으로 "구는 주요시책을 시행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 협의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대립과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호간의 관계를 한 차원 높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이자"면서 "구민의 권리 신장과, 일자리 정책, 복지 증진 등 구민을 위한 정책은 적극 지원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성 정책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최재현 의장과 의 일문 일답**

▲ 제8대 구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끝났다. 구성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두고 일부 갈등이 있었지만, 잘 마무리가 됐다. 의장단을 중심으로 의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내부의 원만한 소통과 화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집행부와 의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이 구성됐으니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의원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주력하겠다.

다시한번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믿고 새로 시작하는 구의회 의장이라는 소임을 맡겨 준 동료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지난 4년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동료의원들께서 인정해 주신 게 아닌가 싶다. 매우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장으로써의 막중한 역할 수행에 대한 책임감도 매우 크다.

▲ 최재현 의장은 "구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 재선의원 출신으로 지난 7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8대 구의회의 지향 점은 무엇인가?

"지난 제 7대에는 많은 부분에서 소통이 부족했다. 소통부족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필요한 갈등과 정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생겨났다. 이러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주요시책을 시행하기 전에 의견수렴 등을 철저히 하여 대립과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여 상호간의 관계가 한 차원 높아 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의원들의 구성이 다양해졌다. 여성의원들의 의회 진출이 많아졌으며 평균 연령도 낮아졌다. 구성이 다양해 진 만큼 각계각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소통의 폭이 더욱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8대 구의회의 구정 구호는 '바른 의정, 구민에게 신뢰 받는 남동구의회'다. 제가 생각하는 바른 의정이란 주민의식 없는 감시와 견제가 아니라,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편익을 위해 발로 뛰어 주민의 고충사항을 살피어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바른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구민들과 소통, 집행부와 의 소통 등 항상 열린 의정을 통하여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의정을 펼쳐야 한다. 소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만들어 항상 구민과 가까이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

▲ 의회가 구민의 뜻을 살피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구민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복안은 있나?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편익을 위해 발로 뛰어 주민의 고충사항을 살피어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바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구정 현안 사항과 각종 민생에 대해 고민하고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남동구를 만들어 나아가야겠다.

이 것이 우리를 구 의원으로 선출해 주신 구민에 대한 도리이며, 우리 남동구 의회의 소명이자 존재의 이유다. 그리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구민과 함께하는 성숙하고 발전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자는 뜻이다.

▲ 55만 남동구민들에게 드릴 인사말씀은...

"더욱 낮은 자세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 그리고 구민 여러분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구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항상 남동구 의회에 믿음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린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 8대 남동구의회가 구민여러분들께 더 큰 희망과 행복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17명의 의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최재현 의장은 누구?**

기초의원 2명을 뽑은 만수2·3·4·5동(마선거구)에서 53.27%(1위)의 득표로 구의원에 당선된 재선의원. 민주당 인천시당 남동을 지역위 여성위원장 출신으로 비례대표로 7대 구의회에 진출했다.

전체 의석 17석 중 10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당내 유일의 재선의원이라 일찌감치 의장감으로 거론됐고, 여야 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8대 전반기 의장에 뽑혔다.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이자 구청장직을 맡고 있던 7대 구의회 때에는 집행부의 구의회 경시 문제 등 주요 구정에 대한 비판, 견제에 앞장서 구청 직원들에게 '눈엣가시' 같다는 평을 들었다.

특히, 의장과 사전 조율없는 인사로 인한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조례' 발의, 시행을 주도했다. 만수초 출신으로 한국방송통신대 청소년교육학과 재학 중.

[인터뷰] 최재현 인천 남동구의회 "지역현안 사업 의견수렴... 구민 원하는 방향 사업 추진"



인천 남동구의회 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최재현 의원이 선출됐다.

최 의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이번 지선에 지역구 의원에 도전해 재선에 성공했다. 최 의장은 "구청장과 같은 당이고 의회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으니 구청장의 구청 운영에 힘을 실어 주겠다"며 "다만 같은 당이라고 해서 맹목적인 지지는 하지 않겠다. 의장단을 중심으로 의원 간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의장과와의 일문일답.

—만장일치로 의장에 선출됐다. 소감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믿고 새로 시작하는 제8대 남동구의회 의장이라는 소임을 맡겨 준 동료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 4년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동료의원들께서 인정해 주신 게 아닌가 싶다. 매우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의장으로서

막중한 역할 수행에 대한 책임감도 크다. 남동구의회가 구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구민의 참뜻이 구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의가 살아 숨 쉬는 민생정치 구현에 힘쓸 것이다. 항상 구민을 먼저 생각하겠다. 대화와 소통으로 구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남동구의회를 만들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

—지난 제7대 구의회를 경험하면서 지역 현안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장으로서 어떻게 활동할 예정인가.

“지난 4년간 정말 많이 발로 뛰어다녔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집행부 공무원과 같이 현장에서 만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지역 현안을 빨리 꿰뚫어 보고 민의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 앞으로는 의장으로서 우리 구의회가 지역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는지를 살펴보고 싶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소통이 중요하다고 본다. 구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선 다양한 소통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 의원들과 구민들이 만날 수 있는 정책 간담회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직접 대화를 통해 생생한 민의를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다. 홈페이지의 의원에게 바란다를 더욱 활성화해 언제 어디서든 구민들의 의견이 의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발로 뛰는 의정으로 현장에서 구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항상 발로 뛰는 열린 의정으로 구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민의를 들을 수 있는 구의회를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협치가 중요하다.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나의 의사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의원들과의 화합이 중요하다. 이러한 뜻에서 상반기 의장단 구성도 의원 간의 화합을 위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조화롭게 구성했다. 원만한 원구성으로 내부의 비생산적인 논쟁과 갈등을 최소화했다. 의원들의 열정적인 에너지를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 의장단을 중심으로 의원 간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부의 원만한 소통과 화합이 먼저 이뤄져야 집행부와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청장과 같은 당이라는 점이 지역 현안 해결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

“일단 구청장과 같은 당이고, 의회 역시 같은 당이 다수당이 됐으니 구청장의 구정 운영에 힘을 실어 주겠다. 의회와 집행부는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달려가는 동반자적인 관계이다. 하지만 구청장과 같은 당이라고 해서 맹목적인 지지는 지양해야 한다. 지난 집행부에서 잘못된 구정운영이 많았는데 의회에서 손을 들어줘서 오히려 주민 불편 사항이 더 많이 생겼다. 이와 같은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충실해야 된다. 민의를 충분히 수렴해 잘못된 정책이나 구정운영에 대해서는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 주요 시책을 시행하기 전에 의견수렴 등을 철저히 하겠다. 대립과 마찰을 사전에 방지해 상호간 관계가 한 차원 높아지도록 만들겠다.”

—의장으로서 임기 내 이루고 싶은 목표.

“2년이라는 임기 동안 지역 현안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첫 단추를 잘 꿴고 싶다. 첫 단추는 결국 지역의 각종 현안을 의회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 사업, 남촌산업단지조성 등 지역 내 굵직한 현안이 많이 있다. 의견수렴을 철저히 해서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파악해 나가겠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역할은 구정이 방만한 살림살이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는 일이다. 유기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소모적인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하겠다. 정치싸움에 치중하지 않고 우리 지역의 각종 현안을 구민의 바람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를 이끌겠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남동구의회, 청소년 의정 아카데미



인천 남동구의회가 지난 13일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을 위한 '의정 아카데미'를 열었다.

아카데미에는 정각중학교 학생 2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연혁·권한 △남동구의회 의원 현황 △의회 용어 등을 배웠다. 이후 본회의장에서 '제1회 청소년 모의의회'가 열렸다.

학생들은 직접 안건을 상정하고 5분 자유발언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에 나섰다.

아카데미 이후에는 최재현 남동구의회 의장, 지역구(구월2·간석2·3·동) 신동섭·이정순·조성민 의원과 만남을 가졌다. 의원들은 학생들에게 덕담을 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인천 남동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개최



인천시 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가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주요 처리안건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과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의견청취의 건 등 총 7건이다.

16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9회 남동구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안건이 처리됐다.

이 후에는 상임위원회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을 심사하게 된다.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은 휴회기간이며,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는 것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는 폐회할 예정이다.

강경환기자 ghhang@sidaeilbo.co.kr

남동구의회, 인수초등학교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인수초등학교 모의의회 체험 [사진제공=남동구의회]

[국민TV 권윤숙 기자] 남동구 인수초등학교 학생들이 남동구의회를 방문해 모의의회를 체험했다.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에는 인수초등학교 73명이 참여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청소년 모의의회에서는 ▲9시 등교제에 대한 조례안 ▲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 보고와 함께, 열띤 토론을 통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청소년 모의의회 의장을 맡은 박윤지 학생(인수초 5년) "의장 역할을 해보니 재밌기도 하고, 많이

떨렸지만 새로운 경험을 해서 좋았다"면서 "이번 모의의회 체험이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남동구의회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 토론문화 및 리더십 함양을 위해 청소년 모의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의정체험행사 관련문의는 남동구의회사무국 (032-453-5151)으로 하면 된다.

남동구의회 의장단, 남동서 등 유관기관 방문에 나서



▲남동구의회 의장단-남동경찰서 방문 모습
[사진제공=남동구의회]



▲남동구의회 의장단-남동소방서 방문 모습
[사진제공=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 전반기 의장단이 23일 남동경찰서를 시작으로 남동소방서, 논현경찰서 등 지역 유관기관을 방문해 소통에 나섰다.

오는 26일까지 4일간 이뤄지는 이번 방문은 상반기 원 구성 후 첫 기관방문으로 총 14개 기관이 대상이다.

최재현 의장은 남동경찰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남동구의회 의향 후 의정활동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민의를 살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방문은 최재현 의장을 비롯해 이유경 부의장, 김윤숙 의회운영위원장, 황규진 총무위원장,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이 참여했다.

이후 주요 일정으로는 24일 남동농협,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국민연금관리공단 남동연수지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25일에는 동부

교육지원청, 남인천세무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마지막인 26일에는 LH공사 인천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동지사, 남동우체국, 인천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한다.

[국민TV 권윤숙 기자]

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폐회 1회 추경 등 안건처리



▲ 반미선 예결위원장이 제249회 구의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에선 예산위 심의 결과를 보고 있다.

인천 남동구의회(의장·최재현)가 23일 제249회 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경안과 조례 및 일반 안건 등 8건 처리 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7천548억원중 (본예산 7천264억원 대비 3.9% 증가) 11천900만원을 삭감, 수정 가결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 했다.

또 사회적경제 발굴, 육성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한 '구 사회경제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사업에 문화행사는 물론 체육까지 확대토록 수정가결 됐다.

일반 안건 중간석성락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등 3건은 모두 원안채택 됐다.

이와 관련, 최재현 의장은 “제8대 구의회에선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살피고 구정 운영이 방만한 살림살이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면서 “집행부에서도 민의를 잘 파악하여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 남동구의회, 유관기관 소통행보... 22건 의견 접수



▲국민연금공단남동연수지사 방문



▲공단소방서 방문

인천시 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 전반기 의장단의 17개 유관기관 소통행보가 지난 26일 마무리된 가운데 총 22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일 많은 5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인천 공단소방서 4건, 남동경찰서가 3건, 이외 기관에서 1~2건 등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중 주민안전 및 주민편의,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협조 요청건은 전체 13건으로 59%를 차지해 유관기관에서도 주민안전망 구축과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동소방서와 인천 공단소방서에서 요청한 화재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관련 조례 제정 건은 남동구 관계부서에서 오는 9월 조례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상습 불법 주 정차로 인해 소방차량 출동 곤란지역(남촌동 등 9개소)에는 주차금지 표시봉

설치 및 주정차 단속 CCTV설치를 요청했다.

최재현 의장은 "이번 유관기관 방문은 지난 7대에서 나타난 소통부족을 느끼며 추진한 것으로, 함께한 의장단도 만족도가 높았다"면서, "유관기관에서는 제8대 의회에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기관에서 요청한 의견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조해 의회가 균형적인 상호동반자적 역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2018년도 남동구의회 운영 기본 일정

▣ 회기 운영 : 총 10회 115일 (임시회 8회 73일 / 정례회 2회 42일)

구분	회 기	일 수	주 요 안 건	비고
계	10회	115일		
제244회 (임시회)	2. 5(월)~ 2.13(화)	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설 연휴 2.15~2.17
제245회 (임시회)	3. 5(월)~ 3.12(월)	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제246회 (임시회)	4.20(금)~ 5. 4(금)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 	
제247회 (임시회)	5.23(수)~ 6. 6(수)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제248회 (임시회)	7. 3(화)~ 7.10(화)	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대 원구성 및 개원기념식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제249회 (임시회)	7.16(월)~ 7.23(월)	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제250회 (임시회)	8.27(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제251회 (제1차 정례회)	9. 4(화)~ 9.20(목)	1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정질문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추석연휴 9.24~9.26
제252회 (임시회)	10.11(목)~10.19(금)	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제253회 (제2차 정례회)	11.20(화)~12.14(금)	2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정질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 본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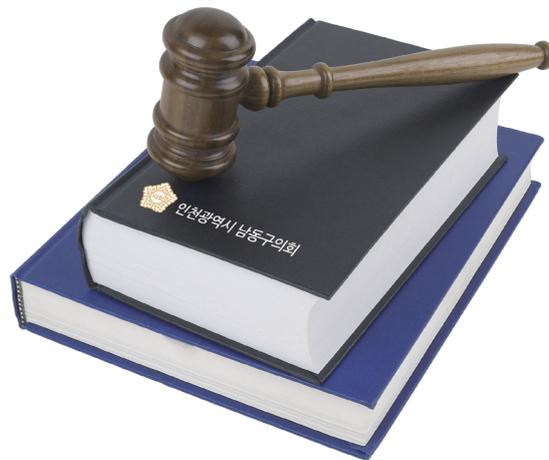
남동구의회 홈페이지에는 의회소개,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기능, 회의록 검색, 의회에 바란다 등 의회의 정보 검색은 물론, 남동구의회의 대외적 홍보와 인터넷을 통한 구민 참여의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http://Council.namdong.go.kr>



구민에게 더 큰 행복과
희망을 채워주는
남동구 의회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